

韓國 新石器時代 隆起文土器에 대하여

田中聰一*

목 차

- | | |
|----------------------|----------------|
| 1. 序 論 | 4. 隆起文土器의 變遷過程 |
| 2. 隆起文土器 研究의 現況 | 5. 結 論 |
| 3. 隆起文土器의 器形과 文樣의 分類 | 參考 및 引用文獻 |

1. 序 論

韓國 新石器時代 土器인 隆起文土器에 관한 認識은 解放前에 日本人 學者들에 의하여 행해진 東三洞貝塚의 發掘調査에서 시작되었고¹⁾, 처음으로 '隆起文土器'라는 用語가 사용된 것도 이 東三洞貝塚 發掘調査 報告書부터였다²⁾. 그러나 本格的인 研究가 시작된 것은 1960年代 以後부터이며 韓國 新石器時代 土器 編年의 큰 位置關係가 어느 정도 確定된 1970年代 以後, 특히 1980年代 以後 많은 研究論文들이 發表되고, 研究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研究의 進展過程에 있어서 研究者들의 관심은 隆起文土器 編年과 함께 新石器時代의 上限年代와 그 文化의 起源 問題가 中心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研究도 먼저 隆起文土器 自體의 變遷과 그 文化的인 특징을 알아야 理解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번 小稿에서는 最近까지 蓄積되어 온 隆起文土器의 새로운 資料들을 利用하면서, 隆起文土器의 器形과 文樣形態와의 關係를 把握하여 隆起文土器의 編年問題를 檢討해 보고자 한다.

* 東亞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博士課程(考古學專攻)

1) 及川忠次郎 1933, 橫山將三郎 1933

2) 及川忠次郎 1933

2. 隆起文土器 研究의 現況

韓國 新石器時代 遺蹟에 대한 發掘調査는 近年의 大規模 開發로 인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遺蹟의 發見과 함께 수 많은 遺物들이 出土되고 있다. 現在 韓國에서 확인되고 있는 新石器時代 遺蹟은 北韓쪽에서 141個所, 南韓쪽에서 264個所, 總 405個所가 있다.³⁾ 그 중에서 隆起文土器가 出土된 遺蹟은 地表採集으로 확인된 遺蹟들을 包含시켜도 30個所정도에 지나지 않고, 그 중에서도 發掘調査가 行해진 遺蹟은 그 折半程度이다. 그 遺蹟들의 分布狀況을 보면 東海岸에 있는 江原道 襄陽郡 巽陽面 鰲山里遺蹟을 北東端으로 하여 慶南·全南地方의 海岸地域 및 南海島嶼地域을 中心으로 비교적 넓게 分布하고 있지만 (圖面 1), 아직까지 土器에 있어서의 地域性 問題 등을 論하기에는 充分한 遺蹟數라고 말하기 어려운 狀態이다. 最近에는 慶北 淸道郡 雲門面所在의 梧津里遺蹟⁴⁾을 비롯하여 內陸地域에서도 隆起文土器 段階 遺蹟의 存在가 報告되고 있어서 앞으로 發掘調査가 進展되면 더욱 많은 遺蹟들이 發見될 것이다.

新石器時代 土器의 器面에는 多様な 文樣이 施文되어 있는 데 이번에 檢討하는 隆起文土器도 土器의 器面에 粘土帶를 붙이거나 道具 혹은 손가락으로 器面을 집어 올려서 隆起시켜 直線·斜線·三角形·格子 등의 여러 幾何學的인 文樣이 施文되는 것을 가장 큰 特徵으로 한 土器이고, 現在 韓國 新石器時代 編年에 있어서 가장 빠른 時期로 位置를 부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發掘調査가 行해진 隆起文土器 出土遺蹟에 있어서 隆起文土器의 出土狀況을 보면, 다양한 型式의 隆起文土器가 같은 土層에서 함께 出土되는 경우나, 또는 보다 늦은 時期에 해당되는 新石器時代 土器들과 混在하면서 出土되는 경우가 거의 大部分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行해져 왔던 隆起文土器 研究의 主體는 文樣屬性, 즉 粘土帶의 幅 및 斷面形態, 粘土帶上의 刻目의 有無(隆起帶와 隆起線의 區別)⁵⁾와 刻目의 形態, 文樣構成, 文樣帶의 位置, 그리고 口唇部와 口緣部 形態를 中心으로 한 器形 등을 檢討하여 各 屬性間의 相關關係나 文樣 및 器形의 型式學의 分析을 基礎로 한 것이고 그것들과 土器의 出土狀況 및 層位關係를 함께 考慮하여 行해져 왔다.⁶⁾

3) 韓永熙 1995

4) 鄭澄元 1994

5) 隆起帶와 隆起線의 區別에 關係는 研究者마다 若干의 認識差가 있는 데 앞으로 統一된 名稱을 붙여야 되는 狀況이다. 筆者는 粘土帶를 붙이고 그 위에 刻目이 찍혀진 것을 隆起帶, 刻目이 찍혀지지 않는 것을 隆起線, 그리고 그것들의 總稱으로서 粘土帶라고 呼稱한다.

6) 代表的인 隆起文土器 研究로서는 廣瀨雄 (1984·1986), 小原哲(1985), 鄭澄元(1985), 宮本

그 연구들은 隆起文土器의 文樣帶⁷⁾와 文樣形態, 粘土帶의 斷面形態 및 調整方法, 隆起帶의 刻目の 形態 등 屬性和 器形을 中心으로 檢討한 것⁸⁾과 주로 隆起文의 文樣形態를 中心으로 檢討한 것⁹⁾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隆起文土器의 施文原理가 粘土帶에 의한 平行區劃과 平行區劃內의 小區劃, 그리고 小區劃內의 充塡施文이라는 段階的인 施文方式에 있는 點에 注目한 林尙澤씨·李相均씨의 研究¹⁰⁾와 深鉢形 隆起文土器를 單純한 器形의 深鉢形土器와 胴部에서 屈曲하는 器形의 深鉢形土器로 크게 나누고, 그 위에 前者를 隆起帶로 施文한 것과 隆起線으로 施文한 것으로 細分한 李相均씨의 研究¹¹⁾는 隆起文土器 研究에 새로운 視點을 提供한 研究로서 評價된다.

그러나 遺蹟에서 出土된 隆起文土器의 大部分이 작은 破片資料이고, 完形 혹은 器形의 推定復元이 可能한 資料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隆起文土器 文樣의 分析을 中心으로하여 研究가 行해져 왔다. 따라서 文樣形態를 통한 研究는 그 全體的인 構成을 알 수 없다는 問題點이 있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의 進展이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하여 機能的인 問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器形(器種)의 分類와 型式變化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充分한 檢討가 되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다음에 檢討하는 것과 같이 隆起文土器의 器形은 어느 정도 定形化되어 있고, 그 各 器形의 形態變化, 各 器形과 文樣形態의 關係, 그리고 文樣形態의 變遷을 綜合的으로 分析하는 것이 더 有效한 研究方法이라고 생각된다. 또 지금까지의 研究에 있어서는 隆起文土器의 地域性이 그다지 重要視되지 않는 傾向이 강하나 各 遺蹟別로 土器群의 分析을 더 詳細히 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土器의 型式差가 地域的인 差異인지 時間的인 差異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隆起文土器의 研究方法으로서 먼저 各 遺蹟에 있어서 隆起文土器의 器形 및 文樣形態의 分類와 分析을 한 다음에 周邊遺蹟들과의 比較研究, 그리고 地域間에 걸치는 廣域的인 研究로 段階的으로 進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¹²⁾

一夫(1986), 任鶴鐘(1993), 林尙澤(1993), 李相均(1994) 등이 있다.

7) 文樣이 施文되는 畫面으로서 帶狀을 나타내고 있는 部分.

8) 廣瀬雄一 1984·1986, 小原哲 1985, 林尙澤 1993

9) 鄭登元 1985, 宮本一夫 1986, 任鶴鐘 1993, 李相均 1994

10) 林尙澤 1993, 李相均 1994

11) 李相均 1994

12) 이번 研究에 있어서 研究方法에 관해서는 鄭登元(1985) 및 宮本一夫(1986) 등의 方法을, 그리고 文樣 分類에 관해서는 小原哲(1985), 宋銀淑(1991), 林尙澤(1993), 李相均(1994) 등의 方法과 概念을 주로 參考로 하여, 특히 用語面에 있어서 하나씩 出典을 明記하지 않지만 小原哲(1985), 林尙澤(1993)의 論文을 많이 參考로 했다.

3. 隆起文土器의 器形과 文樣의 分類

隆起文土器의 器形分類에 대해서는 出土되는 土器의 大部分이 작은 破片資料라는 資料的인 限界때문에 口唇部 및 口緣部의 形態分類로 代用되어 그 研究는 口唇部 形態와 口緣部 形態의 相關關係 혹은 그것들과 文樣形態와의 相關關係라는 視點에서 行해져 왔다. 그러나 最近 發掘調査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많은 土器資料들이 出土되고 있고, 그것들 중에는 器形을 復元할 수 있는 資料도 增加하고 있어 器形을 통하여 隆起文土器를 檢討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또 文樣構成에 관해서는 아주 多樣하고 複雜한 文樣 motive와 그 組合에 대한 研究가 이미 많은 研究者들에 의하여 行해져 왔기 때문에 그 分類方式이나 變遷過程에 관한 여러 意見들이 있는데 아직 意見의 一致를 보지 못한 狀況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隆起文土器의 器形 中에서 특히 遺蹟에서의 出土 個體數가 가장 많은 ‘鉢形(深鉢形·鉢形)土器¹³⁾’를 器形分類의 對象으로 하고 文樣分類에 대해서는 先學 諸氏의 研究成果를 參考로 하면서 整理하고자 한다.

가. 器形의 分類

隆起文土器의 器形으로서 深鉢形·鉢形·淺鉢形(椀形)·壺形 등을 들 수 있는데 遺蹟에서 주로 出土되는 것은 深鉢形·鉢形土器이다. 土器의 編年 研究에 있어서는 各 時期에 使用된 土器들을 樣式的으로 把握하여 그 樣式이 어떤 식으로 變化해 가는가를 檢討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小稿에서는 資料的으로 어느 정도 安定的으로 얻을 수 있고 그 樣相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深鉢形·鉢形土器를 中心으로 해서 생각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器形의 推定이 가능한 資料는 그다지 많지 않은 데 各 遺蹟에서 出土된 ‘鉢形隆起文土器’는 크게 다음 10가지 器形으로 分類할 수 있다(圖面 2·3). 遺蹟에서는 이 10가지의 器形

13) 現在 器形의 分類概念이 되어 있는 深鉢形·鉢形·淺鉢形 등의 名稱은 現代의 研究者가 主觀的으로 分類한 呼稱이고, 그 當時에 있어서의 分類概念하고 다를 수도 있다. 筆者는 아직까지 그 客觀的인 分類方法을 모르기 때문에 深鉢形·鉢形의 總稱으로서 ‘鉢形’이라는 呼稱을 使用한다. 그것을 從來의 器形分類와 對比시키면 器形 A·D·H類는 鉢形, 器形 B·C·E·F·G·I·J類는 深鉢形에 該當된다. 또 器形 H·I類는 花盆形을 나타내고 器形 J類는 脚部에서 屈曲한다는 特徵으로 分類할 수 있지만 아직 整理·檢討의 餘地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번에 試圖한 ‘鉢形隆起文土器’의 器形分類에 있어서도 主觀的인 要素가 크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客觀的인 分類方法에 관해서는 앞으로 解決해야 될 課題로서 남아 있다.

以外的 器形도 出土되고, 또 더욱 세분할 수도 있지만 아직 資料的으로 充分한 檢討를 할 수 있는 狀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10가지 器形만 設定하여 앞으로의 資料의 增加에 따라 補訂하고자 한다.

A類-底部에서 크게 불룩해지는 胴部를 지나고, 內彎 혹은 直立하는 口緣部로 이르는 것이다.(圖面 3-1~3)

B類-底部에서 直線에 가깝게 胴部로 올라가서 口緣部가 外傾하는 것이고, 形態上으로는 V字形에 가깝다.(圖面 3-4~6)

C類-B類와 비슷한 形態인데 胴體下部가 약간 불룩해지고 口緣部가 보다 直立하는 것이다.(圖面 3-7~9)

D類-底部에서 胴體下部까지 緩慢하게 올라가서 口緣部쪽으로 갈수록 傾斜가 급해져서 胴體上部가 外傾하며, 口緣部가 外反하는 것이다.(圖面 3-10·11)

E類-D類와 全體의인 形態가 類似하며 胴體下部의 傾斜가 보다 급해져 胴體上部가 거의 直立하고, 口緣部가 外反하는 것이다.(圖面 3-12·13·15)

F類 胴體上部에서 일단 좁아지고 口緣部가 直立 혹은 약간 外反하는 것이다.(圖面 3-14·16)

G類-F類와 비슷한 器形이고 胴體上部에서 일단 좁아지고 口緣部가 內傾하는 것이다.(圖面 3-17)

H類-比較的 넓고 平坦한 底部에서 急傾斜를 이루면서 直立 혹은 外反하는 口緣部로 이르는 것이다.(圖面 3-18)

I類-H類와 類似한 形態인데 H類보다 器高가 높은 器形을 나타내는 것이다. 口緣部는 直立한다.(圖面 3-19·20)

J類-胴部에서 일단 屈曲하는 것이고, 所謂“屈曲型器形”을 나타내는 것이다. 出土例가 그다지 많지 않아 形態的인 細分은 現時點에서는 어렵다.(圖面 3-21·22)

나. 隆起文土器의 文樣

隆起文土器의 文樣構成에 관한 研究는 이미 많은 研究者들에 의하여 分類와 變遷過程에 대해서 행해져 왔는데 그 研究結果는 研究者마다 若干의 差異點이 보인다. 그러한 狀況에서 各 研究結果의 共通點을 찾아내면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1. 隆起文土器의 文樣構成은 單純한 것에서 複雜한 것으로 變遷한다⁴⁾.

2. 隆起文과 沈線文이 複合된 文樣이 施文된 隆起文土器가 編年的으로 가장 새로운 位置에 比定될 수 있다.¹⁵⁾
3. 隆起文의 施文段階가 平行橫帶區劃 → 區劃間의 小區劃 → 小區劃內의 充填施文이라는 施文段階를 거친다.¹⁶⁾
4. 隆起文土器의 文樣은 文樣構成上으로 보아 몇 가지 文樣群 혹은 文樣系統¹⁷⁾으로 나눌 수 있다.¹⁸⁾

以上の 見解는 어느 정도 認定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것들을 參考로 하여 文樣要素·形態·構成의 類似性을 基準으로 해서 文樣變異를 文樣群別로 分類한 것이 圖面 4~7이다¹⁹⁾. 먼저 隆起文土器의 文樣要素는 크게 隆起帶와 隆起線으로 나눌 수 있고 기타 文樣要素로서 沈線과 刺突(卍捺)이 보인다. 隆起帶와 隆起線은 各各 單獨으로 혹은 複合하면서 文樣을 構成하며 그 위에 沈線이나 刺突이 複合되는 등 아주 多樣하고 複雜한 文樣構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그 文樣變異를 文樣要素의 複合狀況을 基準으로 해서 文樣群別로 整理하면, a. 隆起帶文 文樣群, b. 隆起線文 文樣群, c. (隆起線文 + 刺突文) 文樣群, d. 隆起帶文·隆起線文·沈線文·刺突文 複合 文樣群의 네가지 文樣群으로 크게 分類할 수 있다. 各 文樣群은 몇 가지의 文樣變異로 다시 細分이 可能하며 그것들을 各 文樣群別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²⁰⁾

a. 隆起帶文 文樣群(以下 a文樣群)의 文樣은 文樣要素로서 隆起帶만을 使用한 것이고 다음 9가지 文樣變異로 細分할 수 있다(圖面 4·8).

a1類- 胸部에 平行橫走隆起帶로 된 橫帶區劃만이 施文된 것.(圖面 8-1)

a1'類- 多條의 平行橫走隆起帶가 胸部를 中心으로 施文된 것.(圖面 8-2)

a2類- 胸部에 1~2條의 隆起帶로 橫帶區劃해서 그 內部에 山形 혹은 平行縱·斜走文으로 小區劃된 것.(圖面 8-3~5)

a3類- a2類의 文樣을 基本으로 해서 小區劃內部에 充填施文되어 集線化 혹은

14) 廣瀬雄 · 1984·1986, 小原哲 1985, 鄭澄元 1985

15) 廣瀬雄 · 1984·1986, 小原哲 1985, 鄭澄元 1985

16) 李相均 1994, 林尚澤 1993

17) 文樣에 관해서 그 文樣要素나 構成上에 있어서 共通點이 보이는 무리를 文樣群, 文樣群에 있어서 型式學的으로 分類되는 文樣을 文樣變異, 그리고 型式學的으로 그 變遷過程을 따라 갈 수 있는 文樣變異의 組列을 文樣系統이라고 한다.

18) 李相均 1994, 任鶴鐘 1993

19) 文樣的 檢討에 있어서는 '鉢形(深鉢形·鉢形)土器' 以外에 '盃形(碗形)土器'도 對象으로 했다.

20) 文樣變異의 分類에 있어서는 小破片 때문에 具體的인 構成을 알 수 없었던 것도 많이 있었다.

은 多條化된 것.(圖面 8 6·7)

a4類-口緣部에 一定 空間을 두고 橫走隆起帶를 1條 붙이고 水平區劃²¹⁾한 다음에 그 밑쪽에 山形文이나 平行縱·斜走文이 施文된 것.(圖面 8-8~10)

a5類-口緣部附近에 a2·3 類의 文樣이 壓縮된 文樣이 施文된 것.(圖面 8-11~13)

a5'類-口緣部에 一定 空間을 두고 1~2條의 橫走隆起帶가 붙여진 것.(圖面 8 14)

a6類-隆起帶에 의한 橫帶·水平區劃이 보이지 않고 口緣部부터 胴體上部에 걸쳐서 山形文이나 平行縱·斜走文이 施文된 것. 山形文은 口緣部附近으로 壓縮되는 傾向이 보인다. 平行縱·斜走文에 관해서는 隆起帶의 數로 細分될 可能性도 있다.(圖面 8-15~19)

a6'類-隆起帶에 의하여 曲線이나 不定形의 幾何學文이 施文된 것.(圖面 8-20~22)

b. 隆起線文 文樣群(以下 b文樣群)의 文樣은 文樣要素로서 隆起線만이 사용된 것이고 - 部 沈線을 併用하는 것도 包含되고, 다음 11가지 文樣變異로 細分할 수 있다(圖面 5·9).

b1類-胴部에 平行橫走隆起線으로 된 橫帶區劃만이 施文된 것.(圖面 9-1)

b1'類-多條의 平行橫走隆起線文이 胴部를 中心으로 施文된 것.(圖面 9-2·3)

b2類-胴部の 橫帶區劃이 多帶化²²⁾되어 그 內部를 山形 혹은 平行縱線로 小區劃된 것.(圖面 9-4·5)

b3類-b2類의 文樣을 基本으로 하여 小區劃內部에 充塡施文되어 集線化 혹은 多條化된 것. 橫帶區劃線이 多條化된 것이나 口緣部 밑에 數條의 平行隆起線이 붙여진 것도 보인다.(圖面 9 6·7)

b3'類-胴部에 1~數條의 平行橫走隆起線으로 橫帶區劃해서 그 內部에 多條의 平行斜走文이나 斜格子, 斜行集線文이 充塡施文된 것.(圖面 9-8·9)

b4類-口緣部에 一定 空間을 두고 1~2條의 橫走隆起線이 붙여진 후, 그 아

21) 水平區劃이라는 것은 口緣部下에 一定한 空間을 두고 1~2條의 粘土帶를 옆으로 돌리고 口緣部와 胴部를 區劃하는 것이다. 小原哲(1985)을 參照

22) 文樣帶의 多帶化라는 것은 어떤 文樣帶가 從來 文樣이 없었던 部分으로 轉移하든지 하나의 文樣帶가 幅이 좁은 複數의 文樣帶로 代置되든지 해서 文樣帶의 數를 늘어나는 것이다. 小村啓爾(1983)를 參照

래쪽에 三角 혹은 不定形集線文이나 平行縱·斜走文, 帶狀平行隆起線에 의한 幾何學文·曲線文 등이 施文된 것.(圖面 9-10~14)

b5類-口緣部에 一定 空間을 두고 1~2條의 橫走隆起線이 붙여진 것과 橫走隆起線 위쪽에 三角集線系의 隆起線文이 施文된 것.(圖面 9-16·17)

b6類-隆起線에 의한 橫帶·水平區劃이 보이지 않고 口緣部부터 胴部에 걸쳐서 三角 혹은 不定形集線文이나 平行縱·斜走文, 帶狀平行隆起線에 의한 幾何學文·曲線文 등이 施文된 것.(圖面 9-18~23)

b7類-橫走隆起線의 上下에서 帶狀平行斜走隆起線의 方向을 달리하면서 “>>” 形을 基本으로 한 文樣이 施文된 것. 橫走隆起線이 없어도 類似한 形態를 가진 文樣이나 帶狀 平行隆起線이 曲線化된 것도 포함시켰다.(圖面 9-24~26)

b8類-口緣部에 一定 空間을 두고 1~數條의 橫走隆起線을 붙이고, 그 위쪽에는 多條의 縱走隆起線文을 施文하여 그 밑쪽에도 隆起線에 의한 文樣이 施文된 것.(圖面 9-27~30)

b9類-胴體上部에 平行橫走隆起線에 의한 橫帶區劃을 하여 그 內部에 斜格子文이 施文된 文樣構成인데 斜格子文의 한쪽 斜線이 隆起線이고, 또 다른 한쪽 斜線이 沈線으로 施文된 것.(圖面 9-31)

c. (隆起線文 + 刺突文) 文樣群(以下 c文樣群)의 文樣은 口緣部에 一定 空間을 두고 1~4條 程度의 平行橫走隆起線을 붙이고 그 위쪽을 따라 刺突하여 그 밑쪽에 隆起線에 의한 幾何學文이 施文된 것이고, 一部 沈線을 併用하는 것도 包含된다. 다음 4가지 文樣變異로 細分할 수 있다(圖面 6·10).

c1類-첫줄에 따라 刺突된 數條의 平行橫走隆起線을 口緣部에 一定 空間을 두고 施文하고, 그 밑에 多帶化한 橫帶區劃을 隆起線로 施文하고 그 內部에 山形의 小區劃을 한 것. 橫帶區劃內에 縱走隆起線으로 小區劃된 것이 存在할 可能性도 있다.(圖面 10-1)

c2類-c1類와 비슷한 文樣構成인데 橫帶區劃內의 小區劃에 充塡施文되어 多條化된 것. 橫帶區劃內에 三角集線文이 施文된 것이 存在할 可能性도 있다.(圖面 10-2)

c3類-c1類와 같이 첫줄에 따라 刺突된 1~數條의 平行橫走隆起線을 붙인 후, 그 밑쪽에 集線文이나 平行縱·斜線文, 斜格子文 등이 隆起線으로 施文된 것.(圖面 10-3~7)

c4類- 文樣構成은 다른 c文樣變異들과 같은 口緣部文樣下에 帶狀平行斜走隆起線文이나 斜格子文이 施文되는데 胴部文樣的 全體 혹은 一部가 沈線化된 것.(圖面 10-8·9)

d. 隆起帶文·隆起線文·沈線文·刺突文 複合 文樣群(以下 d文樣群)의 文樣은 隆起帶·隆起線·沈線·刺突이라는 文樣要素가 複合되어 文樣이 施文된 것이고, 文樣群으로서는 더욱 몇 가지 文樣群으로 分類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같은 文樣群으로 分類했다. 다음 10가지 文樣變異으로 細分할 수 있다(圖面 7·11).

d1類- 口緣部에 一定 空間을 두고 橫走隆起帶를 1條 붙이고, 그 밑쪽에 平行 橫走隆起線에 의한 橫帶區劃을 한 다음에 橫帶區劃內에 平行斜走·三角集線·斜行集線隆起線文 등이 施文된 것.(圖面 11-1·2·5~7)

d2類- 口緣部에 一定 空間을 두고 橫走隆起帶를 1條 붙이고, 그 밑쪽에 平行 縱·斜走隆起線文을 施文한 것.(圖面 11-3·4)

d2'類- 口緣部에 一定 空間을 두고 붙여진 1條의 橫走隆起帶의 밑쪽에 多條의 平行斜走·斜格子沈線文이 施文된 것.(圖面 11-8·9)

d3類- 口緣部에 3條 程度의 平行橫走隆起帶를 붙인 후, 그 밑쪽에 隆起線과 沈線 혹은 沈線만으로 斜格子文이 施文된 것.(圖面 11-10)

d4類- 胴部에 多條의 平行橫走隆起帶文을 配置하여 그 위쪽에 多條의 平行 縱走隆起線文이 施文된 것.(圖面 11-11)

d5類- 胴部에 多條의 平行隆起帶文이 配置되어 그 위쪽에 幾何學的인 沈線文이 施文된 것. 沈線文의 代身으로 隆起帶에 의하여 幾何學的인 文樣을 施文한 것도 여기에 包含시킨다.(圖面 11-14·15)

d6類- 첫 줄에 따라 刺突된 數條의 平行橫走隆起線을 口緣部에 一定 間隔을 두고 붙이고, 그 밑쪽에 平行沈線間에 短斜沈線이 채워진 文樣(所謂 雷文)으로 幾何學的인 文樣이 施文된 것. 沈線으로 構成된 文樣과 文樣 사이에는 丹塗되고 있다.(圖面 11-12·13)

d7類- 口緣部에 一定 空間을 두고 橫走隆起帶를 1~2條 붙이고, 그 밑쪽에 平行沈線間에 短斜沈線이 채워진 文樣으로 幾何學的인 文樣이 施文된 것. 沈線으로 構成된 文樣과 文樣 사이에는 丹塗되고 있다.(圖面 11-16·17)

d8類- 隆起帶文에 沈線文과 一部 隆起線이 複合 施文된 것이지만 文樣構成에 있어서 分명한 定型性이 보이지 않는 것.(圖面 11-18·19)

d9類-隆起線文과 沈線文이 複合 施文된 것이지만 文樣構成에 있어서 分명한 定型性이 보이지 않는 것.(圖面 11 20~22)

以上과 같이 隆起文土器의 文樣은 크게 4文樣群, 34文樣變異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章에서는 各 遺蹟에서의 出土樣相을 통하여 器形과 文樣的 相關關係 및 文樣的 變遷過程에 대하여 檢討하고자 한다.

4. 隆起文土器의 變遷過程

앞 章에서 現 時點에 있어서의 出土資料를 토대로 器形과 文樣을 分類했는데 여기서는 代表的인 隆起文土器 出土遺蹟에서의 出土樣相을 통하여 器形과 文樣的 關係 및 文樣構成의 變遷過程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檢討의 對象이 되는 遺蹟은 熬山里遺蹟²³⁾·新岩里遺蹟²⁴⁾·凡方貝塚²⁵⁾·煙臺島貝塚²⁶⁾²⁷⁾·欲知島貝塚²⁸⁾·上老大島(上里)貝塚²⁹⁾·突山松島貝塚³⁰⁾·越高遺蹟³¹⁾·越高尾崎遺蹟³²⁾의 9개 遺蹟이다.

가. 器形과 文樣的 關係

器形에 관해서는 資料的인 問題때문에 各 遺蹟의 檢討가 아니라, 檢討 對象으로 된 全 遺蹟에서 出土된 資料들 중에서 器形과 文樣的 關係를 알 수 있는 資料만을 使用하여 檢討했다. 그 結果로서 表 1과 같은 相關關係를 볼 수 있다(表 1). 먼저 各 器形과 文樣群(變異)의 相關性을 보면 主로 a·b 文樣群과 結合되는 器形A·B·C類, 主로 b·c·d 文樣群과 結合되는 器形D·E類, 그리고 기타 一部 文樣變異와 結合되는 器形F·G·H·I·J類로 나눌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器形F·G·H·I·J類도 文樣變異와의 結合狀況에서 器形F類, 器形G類, 器

23) 任孝宰·權鶴洙 1984, 金元龍·任孝宰·權鶴洙 1985, 任孝宰·李俊貞 1988

24) 國立中央博物館 1988

25) 河仁秀·李海蓮·李賢珠 1993

26) 韓永熙·任鶴鐘 1993

27) 煙臺島貝塚은 A~Mpit, P~Upit, 斷崖部II의 3地點에 나뉘서 報告되어 있는데 比較的 隆起文土器가 많이 出土되어 있는 A~Mpit, P~Upit의 資料를 檢討對象으로 했다.

28) 國立普州博物館·統營郡 1989

29) 金東鎬 1984

30) 國立光州博物館 1989·1990

31) 坂田邦洋 1978

32) 坂田邦洋 1979

形H·I類, 器形J類로 나누어진다. 다만 그 중에서 器形J類에 관해서는 b7·d4類 以外的의 文樣이 施文된 경우나 아무 文樣도 施文되지 않는 경우가 b7·d4類의 文樣을 施文된 경우보다도 많고, 器形J類에도 기타 '鉢形隆起文土器와 같은 文樣이 施文된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된다. 器形과 文樣의 結合關係로서 越高遺蹟에서의 樣相을 보면 器形 A·B·C類는 全般的으로 大型이며 a文樣群의 文樣이 施文되는 경우(例를 들면 圖面 8-2~4·8)가 많고, 器形 D·E·F類는 相對적으로 器形 A·B·C類보다 小型이며 b文樣群의 文樣이 施文되는 경우(例를 들면 圖面 9-3~15)가 많은 것에서 器形別의 用途를 생각하기 위해서 土器의 容量도 重要な 要素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隆起文土器의 容量에 관한 問題도 資料가 充分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研究 課題로 남아 있다.

또 各 器形은 그 形態上의 類似性에서 생각하면 (A·D類) (B·C·E·F·G類) (H·I類) (J類)로 묶을 수 있다. 이것은 이번의 小稿에 있어서 '鉢形' 器形으로서 統一한 器形中에서 鉢形(A·D類), 深鉢形(B·C·E·F·G類), 花盆 鉢(深鉢)形(H·I類), 屈曲型深鉢形(J類)土器에 各各 該當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鉢形隆起文土器의 器形은 文樣의 共通性과 器形の 類似性에서 A類, B·C類, D類, E類, F類, G類, H·I類, J類로 整理되어, 그러한 器形上의 差異가 文樣과의 關係에 있어서 어떤 對應關係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器形과 文樣變異의 相關關係를 알 수 있는 資料가 별로 없는 狀況下에서의 檢討 結果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올바른 樣相을 나타내고 있는지는 確實하지 않고 器形の Set關係 등에 관해서도 아직 不分明한 部分이 많다. 그러나 器形과 文樣의 關係에 있어서 크게는 이러한 傾向이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器形과 文樣群(變異) 사이에 어떤 相關性이 보이는 것을 確認하며 다음에 各 器形の 遺蹟에서의 出土傾向을 보면, 器形A~C·(D)類만이 出土된 遺蹟(鰲山甲遺蹟), 器形A~E·(F)·(J)類가 出土된 遺蹟(新岩里遺蹟·欲知島貝塚·越高遺蹟), 器形A~G·J類가 出土된 遺蹟(凡方貝塚·煙臺島貝塚), 그리고 器形A~D·H·I類가 出土된 遺蹟(突山松島貝塚)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³³⁾(表 2). 以上과 같은 器形과 文樣의 結合關係에 보이는 相關性和 遺蹟에서의 器形の 出土傾向으로 생각해 볼 때, 器形 및 文樣群(變異)이 時間的 혹은 地域的인 差異를 나타낼 可能性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3) 上老大島貝塚과 越高尾崎遺蹟 出土土器에 관해서는 그 大部分이 작은 破片資料이며 器形の 判別은 不可能했다.

나. 文樣의 變遷

다음에 文樣의 變遷에 관해서 보면 各 文樣群에 包含되는 各 文樣變異는 서로 獨立的인 狀態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關係를 가지면서 共存하여 變遷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文樣變異間에 보이는 關係라는 것은 앞에서 다른 研究者들에 의한 研究成果로서 言及한 4가지 事項, 즉 ① 隆起文土器의 文樣構成은 單純한 것에서 複雜한 것으로 變遷한다. ② 隆起文과 沈線文이 複合된 文樣이 施文된 隆起文土器가 編年的으로 가장 새로운 位置에 比定될 수 있다. ③ 隆起文의 施文段階가 平行橫帶區劃 → 區劃間의 小區劃 → 小區劃內의 充塡施文이라는 段階를 거친다. ④ 隆起文土器의 文樣은 文樣構成上으로 보아 몇 가지 文樣群 혹은 文樣系統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見解들로 要約할 수 있다. 그러한 觀點에서 文樣에 관해서 檢討하면 같은 文樣群內에서도 系統的인 變遷過程이 보이는 文樣變異와 그 文樣系統에 屬하지 않는 文樣變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各 文樣群에 관해서 個個 遺蹟에서의 出土樣相(表 3)을 基礎로 하여 먼저 各 文樣群別로 文樣變異의 變遷過程을 檢討하고, 그 다음에 各 文樣群間의 併行關係 및 共伴關係를 생각하고자 한다.

a文樣群의 文樣變異를 型式學的으로 檢討하면 a1~a2~a3~a4~a6類라는 文樣系統을 相定할 수 있다. 그것은 隆起帶에 의한 橫帶區劃 → 橫帶區劃內의 小區劃 → 小區劃內의 充塡施文 → 水平區劃 → 區劃의 消滅 혹은 單純한 文樣에서 複雜한 文樣에의 變化라는 型式變化의 方向性에서 생각하면 a1~a6類의 變遷過程을 相定할 수 있다. 이 a1→a2→a3→a4→a6類라는 變遷過程을 토대로 하여 各 遺蹟에서의 出土樣相을 檢討하면 다음과 같은 共伴關係를 알 수 있다³⁴⁾.

$$\begin{aligned}
 & a1-a1' \\
 & a2-a1' \cdot (a5) \\
 & a3-a1' \cdot (a5) \cdot (a5') \cdot (a6') \\
 & a4-(a1') \cdot a5 \cdot a5' \cdot a6' \\
 & a6-(a1') \cdot a5 \cdot a5' \cdot a6'
 \end{aligned}$$

()內의 文樣變異는 遺蹟에서의 共伴關係가 不確實한 것.

그런데 a5·5'·6' 類에 관해서는 遺蹟에서의 出土樣相에서 생각하면 a3類 以

34) 文樣變異間의 共伴關係에 관해서는 各 遺蹟에서의 出土樣相을 基礎로 하여 型式學的 檢討를 통해서 생각했다.

後에 나타나는 傾向이 강하고 確實한 例로서는 a4·6類와 같이 出土되는 것이 많다.

b文樣群의 文樣變異를 型式學的으로 檢討하면 b1~b2~b3~b4~b6類라는 文樣系統을 相定된다. 이 文樣系統에 관해서도 a1~6類의 變遷過程과 같은 文樣의 型式變化의 方向性이 생각되어 b1·6類라는 變遷過程을 相定할 수 있다. 이 b1→b2→b3→b4→b6類라는 變遷過程을 토대로 하여 各 遺蹟에 있어서의 出土樣相을 보면 다음과 같은 共伴關係를 알 수 있다.

- b1-(b1') (b5)·(b7)·(b8)
- b2-b1' (b5)·b7·b8·(b9)
- b3-b1'·(b3')·b5·b7·b8·b9
- b4-b1'·(b3')·b5·b7·b8·b9
- b6-b1'·(b3')·b5·b7·b8·b9

()內的 文樣變異는 遺蹟에서의 共伴關係가 不確實한 것.

그러나 b文樣群에 屬하는 文樣變異는 多樣하기 때문에 遺蹟에서의 共伴關係, 그리고 不確實하지만 層位的인 共伴關係에서 더욱 자세히 檢討할 必要가 있다. 따라서 型式學的으로 變遷過程을 推定할 수 있는 文樣系統을 基準으로 해서 그것에 屬하지 않는 文樣變異에 관해서 그 共伴關係를 생각해 보면, 먼저 b1'類의 경우는 層位的으로도 b1·2·3·4·6類와의 明確한 共伴關係를 알 수 없고 그 編年的인 位置는 알기가 어렵다. 다음에 b3'類는 現況에서는 突山松島貝塚에서 만 出土되는 文樣變異이며 기타 遺蹟과의 比較에 있어서 問題가 남아 있지만 突山松島貝塚에서의 出土樣相에서 보아서는 b4類와 共伴하는 確率이 높다. b5類에 관해서는 b4類가 出土된 遺蹟 및 層位에서 반드시 b5類가 作出하고 있기 때문에 b4類와 b5類가 共伴되는 傾向이 강하다. b5類가 b6類의 段階까지 殘存하는지는 分明하지 않다. b7類는 上老夫島貝塚 2地區에서 b4·6類와 같이 出土되고 있고 新岩里遺蹟에서의 出土樣相도 생각해서 b4類에 隨伴할 可能性이 높다. b8類는 煙臺島貝塚에서 b3·4·6類와 함께 出土되고 있고 新岩里遺蹟에서는 b2·4類와 같이 出土되고 있다. 그 出土樣相과 型式學的인 檢討를 勘案하여 b(3)·4·(6)類와 共伴할 可能性이 높다고 생각된다. b9類는 現況에서는 煙臺島貝塚에서만 出土되고 있어서 거기서 b4·6類와 共伴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出土된 b文樣群 隆起文土器의 70%以上을 b6類가 차지하고 있는 凡方貝

塚에서는 b9類가 出土되지 않다. 따라서 만약에 b9類가 地域性을 가지는 文樣이 아닌 경우에는 b9類는 b4類와 共作한다고 생각된다. 以上の 檢討結果와 文樣變異의 型式學的 檢討를 통하여 b文樣系統을 다시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 b1-b1'
- b2-b1' (b5)
- b3-b1' · (b3') · (b5) · b7 · (b8) · (b9)
- b4-b1' · b3' · b5 · b7 · b8 · b9
- b6-b1' · (b3') · (b5) (b8) · (b9)

()內的 文樣變異는 遺蹟에서의 共伴關係가 不確實한 것.

c文樣群의 文樣變異를 型式學的으로 檢討해서 c1~c2~c3·4類라는 文樣系統을 相定할 수 있고, 橫帶區劃內에의 小區劃 → 小區劃內에의 充填施文 → 橫帶區劃의 消滅이라는 型式變化의 方向性에서 c1~3·4類라는 變遷過程을 相定된다. 이 變遷過程은 遺蹟에서의 出土樣相을 통해서도 確認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이 整理된다.

- c1
- c2
- c3-(c4)

()內的 文樣變異는 遺蹟에서의 共伴關係가 不確實한 것.

그러나 c3類와 c4類의 共伴關係에 관해서는 新岩里遺蹟에서만 確認되는 狀況이기 때문에(圖面 10-8·9) 地域差 혹은 若干의 時期差를 생각할 必要도 있을 것 같다.

d文樣群으로서 分類되는 文樣變異는 원래 複數의 文樣群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을 하나의 文樣群으로 묶은 것이고, 그 중에는 다른 文樣群으로 包含시킬 수 있는 것³⁵⁾도 있기 때문에 遺蹟에서의 共伴關係를 檢討하기에는 若干의 어려움이 있다. 各 文樣變異는 型式學的으로 檢討하면 d1~d2~d2', d3, d4~d5, d6~d7, d8, d9類라는 複數의 다른 文樣系統으로 나눌 수 있다. 그것들을 橫帶區劃

35) 例를 들면 d8類는 a文樣群으로, d9類는 b文樣群으로, d6類는 c文樣群으로 各各 包含시킬 수도 있고, d4·5類도 b8類와의 關係를 생각해야 될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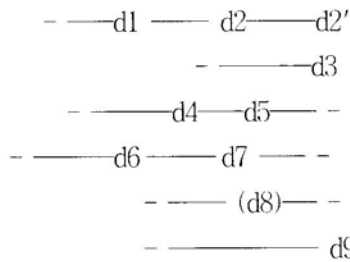
의 消滅과 文樣의 簡略化, 隆起文의 沈線化라는 觀點에서 보면 d1~d2~d2', d4~d5, d6~d7類는 各各 d1→d2→d2', d4→d5, d6→d7類라는 型式變化의 方向性을 相定할 수 있다. 그 文樣變異들의 各 遺蹟에 있어서의 出土樣相을 보면 다음과 같은 共伴關係를 알 수 있다.

d1-		d4 · d5 · d6 · 7	d9
d2-		(d5) · (d6 · 7)	
d2'-		d3 · d4 · (d5) · d6 · 7 · (d8) · d9	
d3--	(d2')	(d4)	(d6 · 7) · (d8) · (d9)
d4-d1	d2' · (d3)		d6 · 7 · (d8) · (d9)
d5-d1	(d2) · (d2')		d6 · 7 d9
d6 · 7-d1	(d2) · d2' · (d3) · d4 · d5 · d6 · 7 · (d8) · d9		
d8-	(d2') · (d3) · (d4)	(d6 · 7)	(d9)
d9-d1	d2' · (d3) · (d4) · d5 · d6 · 7 · (d8)		

()內的 文樣變異는 遺蹟에서의 共伴關係가 不確實한 것.

d文樣群에 관해서는 위와 같은 關係가 보이는데 各 文樣系統이나 文樣類型의 併行關係에는 아직 不確實한 部分이 많다. 특히 d4와 d5類는 遺蹟에서의 共伴關係에서 보면 順序가 逆轉될 可能性도 남기고 있다. 그것은 d4類만이 出土되는 遺蹟(凡方貝塚), d5類만이 出土되는 遺蹟(越高尾崎遺蹟), d4 · 5類의 양쪽이 出土되는 遺蹟(煙臺島貝塚 P~Upit, 突山松島貝塚)이 있는 것에서 보아 d4類부터 d5類에의 變化過程에 있어서 d4와 d5類가 共存하는 時期가 있었던지 아니면 遺蹟의 存續時期가 d4~5類의 時期에 걸쳐 있었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d6과 d7類의 경우 部分的인 小破片이라면 區別할 수 없고 概念上으로는 나눌 수 있어도 實際로는 區別할 수 없는 例가 많다. d8類에 관해서는 確認할 수 있는 遺蹟이 별로 없기 때문에 相對的 位置關係를 確定하기가 어렵다. 越高尾崎遺蹟에서의 出土樣相을 보면 2層에서 d5 · 7類가 共伴하여 6層에서 d2 · 7類가 共伴하고 있는 것으로 d2 · 5 · 7類가 時間的으로 比較的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以上の 共伴狀況 및 文樣變異의 型式學的인 檢討를 통하여 各 文樣群 및 文樣變異의 併行關係를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編年的인 位置關係를 推定할 수 있다.



以上 檢討한 바와 같이 隆起文土器의 文樣은 文樣群別로 어느 程度 獨立的으로 橫帶區劃 → 橫帶區劃內에의 小區劃 → 小區劃內에의 充塡施文 → 區劃의 消滅이라는 變遷原理에 따라 變化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다음에는 各 文樣群間의 時間的인 併行關係에 關하여 檢討해 보고자 한다.

各 文樣群間의 併行關係도 遺蹟에서의 共伴關係를 基準으로 해서 型式學的인 檢討를 가하면서 하려고 한다. 併行關係를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基準軸이 必要한데 그것은 比較的 單純한 變遷過程을 나타내면서도 많은 文樣變異를 거쳐서 變遷하는 a文樣群을 基準으로 하고자 한다. a文樣群은 a1→a2→a3→a4→a6類라는 文樣系統을 軸으로 하여 變遷하고 있는데 文樣變異a1·a2·a3·a4·a6類를 일단 ①·②·③·④·⑤段階라는 順序로 代置해서 各 遺蹟에 있어서의 出土樣相의 檢討를 진척시킨다.(表 3)

鰲山里遺蹟에서는 a1類가 出土되고 있는 것에서 보아서 ①段階³⁶⁾에 該當되는데 a1·1'·(5), b1'·(5)類가 함께 出土되고 있다. 그러나 出土資料數가 적고, 大部分의 資料가 地表採集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원래의 土器相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지는 不確實하다. 그리고 a5類가 出土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檢討한 듯이 ③段階 以後에 該當한다. 또 b5類(圖面 9-7)에 關해서도 文樣이 口緣部쪽으로 壓縮된다는 文樣構成上의 共通點에서 보고 a5類와 같은 時期에 該當될 可能性이 높다. 따라서 資料的으로는 不充分하지만 鰲山里遺蹟 出土의 隆起文土器는 ①段階와 ③段階以後의 2時期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된다.

新岩里遺蹟에서는 a1·1'·2·3·5, b1·1'·2·3·4·5·7·8, c1·3·4, d6·(7)類가 함께 出土되고 있어서 ①~③段階에 該當된다. 遺物은 3 層下面과 4 層에서 出土되었는데 報告書에서는 一括해서 整理되어 있기 때문에 層位的인 檢討는 할 수 없다. 出土土器의 傾向에서 보면 ②~③段階가 中心 時期라고 생

36) 各 遺蹟의 段階設定에 關해서는 어디까지나 隆起文土器만을 통해서 設定한 것이고, 隆起文土器 以外의 土器 및 다른 時期에 屬하는 土器는 檢討 對象으로는 하지 않았다.

각된다.

凡方貝塚에서는 $a1' \cdot 3 \cdot 4 \cdot 5 \cdot 5' \cdot 6 \cdot 6'$, $b1' \cdot 4 \cdot 5 \cdot 6 \cdot (8)$, $c(2) \cdot 3$, $d2' \cdot 3 \cdot 4 \cdot 5 \cdot 6 \cdot (7) \cdot 8 \cdot 9$ 類가 같이 出土되고 있어서 ③~⑤段階에 該當된다. ③~⑤段階의 基準資料인 $a3 \cdot 4 \cdot 6$ 類가 모두 12層에서 함께 出土되고 있어서 文樣變異의 共作關係를 層位的으로 細分할 수 없는 狀態이다. 出土土器에서 보고 ⑤段階를 主體로 하는 貝塚이라고 생각된다.

煙臺島貝塚에서는 $a1' \cdot 5 \cdot 5' \cdot 6 \cdot 6'$, $b1' \cdot 3 \cdot 4 \cdot 5 \cdot 6 \cdot 8 \cdot 9$, $c2 \cdot 3$, $d1 \cdot 2' \cdot 4 \cdot 5 \cdot 6 \cdot (7) \cdot 9$ 類가 함께 出土되어 있다. a文樣群에서 보아서는 ④~⑤段階에 該當되는데, 文樣構成에 있어서 아직 文樣區劃이 남아 있는 段階의 文樣變異($b3 \cdot 4$ 類)도 出土되고 있다. 이러한 狀況은 a文樣群과 b文樣群 사이에 있어서 文樣區劃의 消滅時期에 있어서 差異가 있었던 것을 나타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b文樣群의 樣相에서 遺蹟의 存續時期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中心 時期는 ④~⑤段階라고 생각된다.

欲知島貝塚에서는 $a4 \cdot 5 \cdot 5' \cdot 6 \cdot 6'$, $b4 \cdot 5$, $c^{37)}$, $d1 \cdot 2$ 類가 같이 出土되고 있어서 ④~⑤段階에 該當된다. 發掘調査는 pit와 H trench의 2地點에 나누어서 實施되어 隆起文土器는 주로 pit地點에서 出土되었는데 層位的으로 混在하고 있어서 細分하기가 어렵다.

上老大島貝塚 2·3 地區³⁸⁾에서는 $a5 \cdot 6$, $b1' \cdot 2 \cdot 3 \cdot 4 \cdot 6 \cdot 7 \cdot 8$, $c3$, $d(6) \cdot (7)$ 類가 함께 出土되어 있지만 報告된 資料는 그다지 많지 않다. 여기서도 煙臺島貝塚처럼 $a6$ 類와 함께 $b2 \cdot 3 \cdot 4$ 類가 出土되고 있는데, 2地區 VI層에서는 $a5$, $b2$, c 類가, 3地區 IV層에서는 $b2 \cdot 3 \cdot 4 \cdot 8$, c 類가 出土되고 있어서 $a6$ 類와 $b2 \cdot 3 \cdot 4$ 類는 層位的으로 分離될 것 같다. 그런데 本 貝塚出土의 $a6$ 類(圖面 8 15)는 椀形土器이며 기타 鉢形隆起文土器하고는 文樣 變遷過程을 다르게 생각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러한 생각이 可能하다면 遺蹟의 存續時期로서는 ②)·③~④段階를 中心으로 하고 一部 ⑤段階까지 存續했다고 생각된다.

突山松島貝塚에서는 文樣變遷 段階의 基準이 되는 $a1' \rightarrow 6$ 類文樣系統의 土器가 出土되지 않기 때문에 基準段階를 設定할 수 없다. 그러나 기타 a文樣群의 文樣으로서 $a1' \cdot 5 \cdot 5' \cdot 6'$ 類가 出土되고 있기 때문에 ③)·④~⑤段階의 어느 段階인가에 該當한다고 推定된다. 여기서는 그 a文樣群의 文樣과 함께 $b1' \cdot (3) \cdot 3' \cdot 4 \cdot 5 \cdot 6$, $c3$, $d1 \cdot 4 \cdot 5 \cdot 6 \cdot (7) \cdot 9$ 類가 出土되어 있고, 隆起文土器

37) c文樣群中에서 어느 文樣變異에 屬하든지 不分明한 것.

38) 上老大島貝塚에 관해서는 出土土器의 樣相을 알 수 있는 2·3 地區에 관해서만 檢討했다.

單純層인 IV層에서는 a5·5', b1'·3'·4·6, c3, d1·6類가 함께 出土되어 있다.

越高遺蹟에서는 a1'·2·4·5·(5'), b4·6, d2類가 같이 出土되고 있어서 ②·④段階에 該當된다. 그 중에서 b6類(圖面 9-20)는 口緣部에 약간 空間을 두고 施文이 시작되고 있는 것에서 아직 水平區劃을 意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b4와 b6類의 中間에 位置를 부여할 수 있다. 越高遺蹟 出土土器는 모두 같은 土層에서 出土되고 있기 때문에 層位的으로 分離할 수 없지만 같은 土層에서 日本 繩文時代 早期에 編年되는 土器가 共伴되고 있는 것은 韓國 南部地方과 日本 九州地方의 編年の인 併行關係를 생각하기 위해서 좋은 資料가 된다.

越高尾崎遺蹟에서도 基準이 되는 a1-6類文樣系統의 土器가 出土되지 않기 때문에 基準段階를 比定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a文樣群의 文樣으로서 a5·5'類가 出土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③)·④~⑤段階中の 어느 段階인가에 該當할 可能性이 높고 여기서는 그 a文樣群과 함께 b6, d2·5·(6)·7類가 出土되고 있다. 따라서 ④~⑤段階에 比定되는 것으로 보인다. 層位別 出土樣相을 보면 2層에서 b6, d5·7類, 4層에서 (a5')類, 5層에서 d2類, 6層에서 a5·5', d2·7類가 出土되고 있어서 d文樣群의 文樣變異의 出土樣相에서는 큰 時期幅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越高尾崎遺蹟에서는 韓國 隆起文土器, 刺突·押引文系土器와 함께 日本 繩文時代 早期後葉의 塞ノ神式土器와 前期初頭の 轟 B 式土器, 前期의 野口·阿多type 土器³⁹⁾·曾畑式土器가 層位的으로 出土되고 있어서 越高遺蹟과 함께 兩 地域의 編年の인 併行關係를 생각하기 위해서 좋은 資料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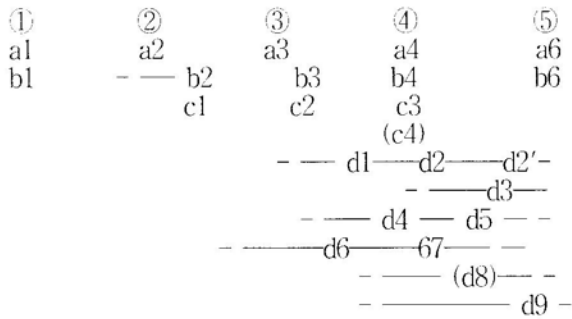
위에서 본 것과 같이 各 遺蹟에 있어서 여러 文樣變異가 複雜하게 混在하여 出土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a文樣群과 b文樣群의 關係는 文樣構成의 類似性에서 a1·a2·a3·a4·a6類의 各各과 b1·b2·b3·b4·b6類의 各各이 對應한다고 생각되어, 서로 가까운 時間的인 位置關係를 생각된다. 다만 b2類는 橫帶區劃이 多帶化하고 있는 것에서 a2類와 같은 位置 혹은 若干 後出하는 位置를 比定할 수 있다. 그리고 遺蹟에서의 共伴關係에서 생각해 보면 煙臺島貝塚과 같이 ⑤段階를 中心時期로 하는 遺蹟에서 b2·3·4類가 出土된 例도 있고, b3類는 a3類보다 더욱 a4類에 가깝게 位置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c文樣群에 있어서는 胴部文樣的 文樣構成의 類似性에서 c1·2·3類는 各各 b2·3·4類와 對應關係가 把握되는데 遺蹟에서의 出土樣相도

39) 中村應 1982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c4類에 관하여는 앞에서提及한 것과 같이 確實한 出土例가 新岩里遺蹟을 除外하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編年的인 位置關係는 不分明하지만 文樣構成上에서 보아 c3類와 가까운 位置를 부여할 수 있다. d文樣群에 관해서는 遺蹟에서의 共伴關係와 文樣構成의 型式學的인 檢討를 통하여 不確實하지만 d1→2→2'類, d4→d5類, d6→d7類라는 型式變化的 方向性和 各文樣變異間의 時間的 및 相隣的인 位置關係를 相定했다. d文樣群의 各文樣變異와 기타 文樣變異와의 共伴關係를 통하여 그 位置關係를 생각하면 凡方貝塚와 煙臺島貝塚 欲知島貝塚에서의 出土樣相에서 d1·2·2'·3類는 ③·④~⑤段階에, 凡方貝塚와 煙臺島貝塚에서의 出土樣相과 b8類와의 文樣構成上의 類似性에서 d4·5類는 ③·④~⑤段階에 該當된다. 또 d6·7類는 鰲山里遺蹟와 欲知島貝塚을 除外한 기타 모든 遺蹟들에서 出土되고 있는 것에서 ②~⑤段階에 該當된다고 생각되는데, 文樣構成上에서 보아서는 d6類는 c文樣群과의 關係가 相定되어 ②·③~④段階에, d7類는 d1·1'·2類와의 關係가 相定되어 ④~⑤段階에 該當된다고 생각된다. 이 d6·7類의 土器는 全體적으로 精選된 胎土를 利用해서 器壁을 얇게 만들고 丹塗를 하는 등 特別한 用途를 가진 土器로서 생각된다. 그리고 d9類에 관해서는 比較的으로 많은 d9類 資料가 出土되어 있는 凡方貝塚와 煙臺島貝塚 그리고 어느 段階에 該當되는지는 不確實하지만 突山松島貝塚에서의 出土樣相에서 보면 ④~⑤段階에 該當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편 ④~⑤段階에 該當되는 遺蹟이라도 d9類가 보이지 않는 遺蹟들도 있다. 결국 d9類는 ④~⑤段階에서도 낮은 段階, 즉 ⑤段階의 前後에 位置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以上 各 遺蹟에서의 文樣變異의 共伴關係 및 型式學的인 檢討를 통하여 얻어진 結果를 整理하면 다음과 같은 文樣變異의 變遷이 생각된다.

다음의 模式圖를 基礎로 해서 鉢形隆起文土器 文樣變異의 變遷過程을 생각한 것이 圖面 12이다(圖面 12). 다만 이 編年表는 어디까지나 a文樣群內의 a1→6類文樣系統을 基準로 한 것이고 앞으로의 研究 結果를 통하여 統合 혹은 細分해야 될 部分도 있다고 생각되어 지금 段階에서의 漸定的인 編年이라는 것을 明記해 두고자 한다.



()内の 文様變異는 遺蹟에서의 共存關係가 不確實한 것.

다. 隆起文土器의 變遷

앞에서 器形과 文樣群(變異)의 關係에 關係해서 檢討했는데 여기서는 文樣變異의 變遷過程을 통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器形마다 施文되는 文樣과의 相關關係를 보면(表 1), 器形A類는 a1' · 2 · 4 · 5 · (5') · 6 · 6', b1' · 3 · 4 · 6 · 7, d(4)類, 器形B類는 a1 · 2 · 3 · 4 · 5 · 5' · 6 · 6', b1' · 3 · 4 · (8), c4, d1類, 器形C類는 a1' · 2 · (4) · (5'), b1 · (3') · (4) c(4), d(2) · 6類, 器形D類는 a1', b1' · 3 · 4 · 6 · (8), c1 · 2 · 3, d5 · 6 · 7 · 9類, 器形E類는 b3 · 4 · (5) · 6 · 9, c3, d1 · 2 · 2' · (3) · 6 · 7 · 9類, 器形F類는 a6, b4 · 5 · 6類, 器形G類는 a1' · 6, b6, d9類, 器形H類는 b3' · (6), d1類, 器形類는 b3' · 6類, 器形J類는 b7, d4類의 文樣과 各各 相關關係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統計資料로서는 充分하지 않고 앞으로의 發掘調査에 의하여 새로운 資料들이 發見되어 訂正해야 될 部分도 많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지금의 段階에 있어서 文樣變異와 器形의 相關關係를 整理하면 다음과 같이 생각된다.



여기서도 a1·2·3·4·6類를 各各 ①·②·3·④·⑤段階로 代置하여 鉢形隆起文土器의 變遷過程을 說明하면 ①~②段階에는 器形A·B·C類가 보이며, 施文되는 文樣變異으로서 a1·1'·2類의 文樣이 中心이 되고 기타 b1·1'·2類 등의 文樣도 보인다. 形態적으로 類似的한 器形B類와 C類의 關係에 관해서는 器形C類의 胴體下部가 B類보다 볼록해지는 形態上의 差異點이 있어서 거기에 型式上의 差異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各 遺蹟에서의 遺物 出土樣相 및 文樣的 變遷過程에서 보아도 型式的인 差異의 存在를 뒷받침하는 根據를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그 型式變化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斷定하기 어렵다. 器形B類가 ①~⑤段階의 거의 全體에 걸쳐서 存在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器形C類는 보다 짧은 期間에만 存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器形B類라고 分類한 資料들 가운데 器形C類의 資料가 包含되고 있을 可能性도 充分히 생각해야 될 것 같다. 또 ①~④·⑤段階의 長期間에 걸쳐서 器形A·B·C類의 器形이 전혀 型式變化하지 않더라는 것도 생각하기 어렵지만 과연 그것들을 型式學的으로 어떤 식으로 分類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解決할 수 없는 問題이다.

②~③段階, 즉 b2類의 出現 以後, 器形에서는 D·E類가 出現하여 文樣에서는 c文樣群이 出現한다. 文樣群으로서 c文樣群에 屬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d6類도 이 段階에 出現한 것이 생각되는데 文樣構成上에서 보아서는 약간 後出했을 可能性이 높다. c文樣群과 器形D·E類는 相關성이 높고 그 兩者의 出現에는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b文樣群에도 이 段階 以後 文樣變異의 多樣化라는 變化가 段階적으로 進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 4段階에는 器形F類가 새로 나타난다. 이 段階가 되어도 從來 있었던 器形A·B·C類는 繼續해서 存在하고 있고 器形D·E·F類라는 새로운 器形과 共伴하는데, 表 1을 보면 器形A·B·C類와 器形D·E·F類에는 各各 다른 文樣群의 文樣이 施文되는 傾向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狀況은 器形A·B·C類와 D·E·F類 사이에 器形上의 差異뿐만 아니라 文樣으로 의해서 象徵되는 어떤 差異(例를 들면 用途의 差異등)도 있었을 可能性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 段階 以後, 隆起線을 基本으로 해서 施文된 文樣이 文樣群에 있어서 主流가 될 뿐만 아니라 文樣變遷에 있어서도 中心的인 位置를 차지하게 되는데, 한편 隆起帶를 主要한 文樣要素로 하는 文樣은 a文樣群內에서는 文樣區劃의 消滅이라는 變化의 方向에 따라 比較的 單純한 文樣으로 變遷하거나 아니면 다른 文樣과 複合되는 경우에도 水平區劃 등 附屬的인 位置를

차지하게 된다. 그것은 ④段階以後에 顯著하게 되며, ④段階에는 器形Ⅰ類의 出現과 함께 d1類를 비롯한 多様な d文樣群의 文樣이 나타나는데 d文樣群의 水平區劃이나 口緣部 및 胴部文樣으로서 隆起帶文이 施文되는 경우가 많다.⁴⁰⁾ a4·b4·c3類 모두 橫帶區劃이 없어지고 水平區劃 밑에 胴部 文樣이 施文되는 文樣構成이 되는 點에서는 共通하는데 b4·c3類의 文樣(圖面 9-13~15, 10-3·4 등)이 胴部에 全體的으로 施文되는 것에 비하여 a4類의 文樣(圖面 8-8·15 등)은 胴體上部 쪽에 集中하는 傾向이 있다. 이 傾向은 다음 ⑤段階에도 a5類와 b6類의 差異로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b文樣群의 文樣變異가 多様하게 나타나는데 b3'·7·8類라는 b1-6類文樣系統에 包含시킬 수 없는 文樣變異도 ③段階, 確實한 例로서는 ④段階以後에 出現한다고 생각된다. 그 중에서 b3'類에 관해서는 突山松島貝塚와 그 周邊島嶼⁴¹⁾에서만 보이는 文樣變異이기 때문에 그 文樣들이 施文되고 있는 器形Ⅰ類와 함께 地域的인 特色으로서 把握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 ⑤段階가 되면 器形G類와 文樣d9類를 비롯한 沈線文이 複合된 文樣變異가 多様하게 나타난다. 器形의 出現狀況과 型式變化의 方向, 즉 胴體上部가 外傾하는 것에서 直立·內傾하는 것으로, 口緣部가 外反하는 것에서 直立·內彎하는 것으로서는 變化에서 E→F→G類라는 器形의 變化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器形G類가 나타나는 段階까지 器形Ⅰ·F類가 繼續해서 存在하고 있어서 器形Ⅰ에서의 多様化라는 樣相을 보이고 있다. 隆起帶·隆起線의 刺突·沈線化는 ③ 혹은 ④段階以後에 보이는 變化인데 ⑤段階가 되면 더욱 刺突·沈線文에의 變化가 進行된다. 隆起帶·隆起線의 刺突·沈線化는 처음에는 隆起帶나 隆起線에 代置되어 그 施文規則에 따라 施文되고 있었는데, 그것에 비하여 ⑤段階의 特徵으로서 d9類에 보이는 것처럼 沈線이 隆起帶나 隆起線이 代置되어 그 施文規則에 따라 施文되는 것이 아니라 隆起帶·隆起線과 相關없이 不規則的으로 施文되는 경우가 많다는 點을 들 수 있다. 이러한 傾向은 d8類에서도 共通하는 것이고 그 編年的인 位置는 凡方貝塚에 있어서도 確認되고 있다.⁴²⁾ 그러나

40) d1類의 文樣에 보이는 橫帶區劃은 橫帶區劃의 消滅이라는 4~5段階에 있어서의 型式變化의 方向性에서 생각하면 理解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文樣系態上的 類似性에서 d1類는 a3類 다음 段階로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한 型式變化 過程이 認定된다면 d1類의 橫帶區劃도 充分히 理解할 수 있다.

(日本 九州大學 大學院 比較社會文化研究科 修士課程 崔鐘赫씨의 敎示)

41) 趙現瞻·申相孝·殷和秀 1994

42) 河村秀·李海運·李賢珠 1993

隆起文土器 終末期의 樣相은 아주 複雜하다고 생각되고 다음 刺突 · 押引文土器와의 關係나 그 時期의 細分 등 아직 不分明한 部分이 많다.

또 文樣의 變遷過程이라는 視點에서 보면 a文樣群은 文樣區劃의 消滅이라는 型式變化의 方向에 따라서 文樣이 口緣部에서 胴體上部에 集中하게 된다. 이 a文樣群에 있어서는 文樣로서의 規則性이 a6類 段階까지 남아 있는 것에 대하여 기타 文樣群에서는 文樣施文部가 胴部 全體로 넓어지고 文樣로서의 規則性이 없어지는 傾向이 보인다. 이러한 傾向은 ④~⑤段階에 보이는 樣相인데, 어느 程度 文樣로서의 規則性을 가지고 있는 a文樣群안에서 다음 刺突 · 押引文土器에의 變化가 생겼는지 아닐까라고 생각된다. 이 段階에는 그러한 새로운 要素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도 생각할 수 있고 隆起文土器의 分析만으로는 그 樣相을 充分히 把握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 樣相에 관해서는 다음에 다시 논하고자 한다.

以上 器形과 文樣群(變異)의 關係, 遺蹟에서의 出土樣相 등을 檢討하여 隆起文土器의 變遷過程을 檢討해 보았다. ①~⑤段階에는 器形類型上 혹은 文樣類型上의 變遷過程이 認定되어 各 段階의 細分 혹은 統合의 可能性도 있지만 그 變遷過程의 方向性은 어느 程度 確實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變遷過程에 따라서 遺蹟마다의 存續時期를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①	②	③	④	⑤
鰲山里	————	—	—	—	—
新岩里	————	————	————	—	—
凡方				————	————
煙臺島				————	————
欲知島				————	————
上老大島			————	————	————
突山松島				————	————
越高	————	————		————	————
越高尾崎				————	————

지금까지 '鉢形' 隆起文土器의 器形과 文樣이라는 側面에서 주로 文樣의 變遷過程을 軸으로 해서 器形의 變遷 및 遺蹟의 存續時期에 관하여 큰 흐름을 생각했다. 그 結果를 보면 ③段階 前後에 器形·文樣群(變遷)의 多樣化, 文樣의 型

式變化의 主體가 隆起帶를 主體로 하는 文樣에서 隆起線을 主體로 하는 文樣으로 옮기는 등 鉢形隆起文土器 안에서 큰 變化가 보인다. 그리고 壺形이나 淺鉢形(碗形)土器라는 기타 器形에 관해서는 越高遺蹟 出土 壺形土器의 存在에서 ③ 혹은 ④段階부터 壺形이라는 器形이 發生했던 것으로 생각되고, 한편 上老大島貝塚 出土 淺鉢形(碗形)土器의 存在에서 ④ 혹은 ⑤段階에는 淺鉢形(碗形)土器가 出現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 밖에 遺蹟에 보이는 樣相으로서 ③段階以後에 貝塚을 主體로 하는 遺蹟들이 많이 出現하는 것 등, 아직까지 不確實한 要素가 많지만, 隆起文土器의 器形 및 文樣의 多樣化라는 變化에서 그 時期에 土器를 使用한 生活上 그리고 文樣認識上에서 어떤 變化의 存在를 推定할 수 있고 貝塚을 中心으로한 遺蹟의 增加라는 現象에서 生活樣式에 있어서의 變化를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變化를 注目하고 그 ③段階의 前後로 前半期와 後半期로 크게 나눌 수 있다. 前半期와 後半期에 該當되는 各 遺蹟을 보면, 前半期 遺蹟으로서는 鰲山里遺蹟·新岩里遺蹟 그리고 上老大島貝塚 2地區 VI層 및 3地區 IV層과 越高遺蹟의 一部를 들 수 있고, 後半期 遺蹟으로서는 나머지 遺蹟들을 들 수 있다.

그런데 研究上의 問題點으로서는 먼저 現時點에 있어서 ①~③段階의 遺蹟이 東海岸에 ④~⑤段階의 遺蹟이 洛東江 河口과 南海 島嶼地域에 集市的으로 分布하고 있다라는 것을 提示된다. 이것은 ①~⑤段階에 걸쳐서 土器의 變遷過程을 同·地域內에서 檢討할 수 없다라는 것을 意味한다. 따라서 이번엔 檢討한 各 段階의 差異가 時間差가 아니라 地域差에 起因할 可能性도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解決하기 위해서는 地域마다의 集落pattern의 差異 등 더욱 複雜한 樣相을 생각해야 될지도 모른다. 또 檢討對象이 되는 遺蹟數가 적다라는 것도 問題點으로서 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遺蹟數도 적고 良好한 層位的인 事例도 별로 없는 現況에서는 遺蹟에서의 出土狀況을 基礎로 그것을 겹쳐 쌓은 方法이라면 樣式內의 type variation을 樣式差(時期差)라고 把握할 可能性도 크다.”⁴³⁾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엔 檢討한 器形類型도 한 樣式內에서의 形式差로서 把握하는 것이 더욱 實際的인 分類가 될 可能性도 있다. 그리고 遺蹟에서의 共伴關係에 基礎를 두는 編年으로는 遺蹟이 複數時期에 걸쳐서 形成된 경우에서의 各 時期마다의 器形의 Set關係의 認定에 不確實한 部分이 남는다. 따라서 層位나 遺構에서의 確實한 共伴關係의 認定이 앞으로의 課題인데 이 點에 관해서는 土器에 보이는 地域色과 함께 더욱 자세한 檢討가 必要하다고 생

13) 澤下孝信 1989

각된다.

마지막으로 東아시아의 視點에서 韓半島 新石器文化를 생각하기 위해서 地理的으로 가까운 近隣地域인 日本 九州地方과의 時期的인 併行關係에 관해서 생각하려고 한다. 韓半島의 南部地方을 中心으로 하는 地域에서 隆起文土器가 使用되었던 時期는 日本 繩文時代 바른 段階하고 比較되는 것은 이미 몇 研究者들에 의한 研究 結果로서 알려지고 있다.⁴⁴⁾ 그것들은 주로 型式學的인 比較 研究에 基礎를 두는 것이고 그 時期는 繩文時代 草創期부터 前期初頭까지 研究者間의 認識差가 보인다. 地域間에 있어서의 編年的인 併行關係를 알기 위해서는 型式學的인 檢討와 함께 各 地域에 다른 地域에서 搬入된 遺物들을 利用해서 交差年代를 檢討하는 方法이 重要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아직까지 確認된 例로서는 적지만 兩 地域에서 그러한 韓國 隆起文土器와 日本 繩文土器가 共伴해서 出土되고 있는 遺蹟을 찾으면 東三洞貝塚⁴⁵⁾, 煙臺島貝塚⁴⁶⁾, 越高遺蹟, 越高尾崎遺蹟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前二者에 관해서는 出土狀況이 不分明하기 때문에 後二者에 관해서만 檢討하고자 한다. 먼저 越高遺蹟은 隆起文土器의 分析을 통해서 ②·④段階에 比定되었는데 日本 繩文時代 早期에 編年되는 土器가 共伴하고 있다. 한편 越高尾崎遺蹟에서는 ④~⑤段階中的인 어느 段階인지의 隆起文土器와 繩文時代 早期後葉에 編年되고 있는 塞ノ神式土器나 前期初頭の 轟B式土器, 前期의 野口·阿多type土器·曾畑式土器가 共伴되고 있다. 繩文土器는 層位的으로 時期的 變遷을 나타내면서 出土되고 있어서 早期後葉의 塞ノ神式土器와 前期初頭인 轟B式土器가 出土되고 있는 4層에서는 (a5')類와 共伴되는 있다. 時期比定이 可能的인 繩文土器는 모두 4層보다 위쪽 土層에서 出土되고 있고, 또 4層에서 繩文土器와 共伴되는 隆起文土器의 文樣變異가 確實하지 않는 狀況이기 때문에 그 土層의 時期比定은 어렵다. 그러나 그 土層보다 밑쪽에 있는 土層인 6層에서는 a5·5', d2·7類가 出土되고 있어서 6層이 ④~⑤段階에 있어서도 ④段階에 가까운 時期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6層에서는 斜格子細沈線文이 施文된 土器나 押引文이 施文된 土器도 함께 出土되고 있는 것에서 그 共伴

44) 韓國 隆起文土器와 近隣地域 土器의 編年的인 併行關係에 관해서는 Amurji 中流域의 Novo-Petrovka 遺蹟 出土의 隆起文土器와의 關聯性을 指摘하는 見解(鄭燦元 1985 등), 日本 繩文時代 草創期の 細隆起線文土器와의 關聯性을 指摘하는 見解(韓永熙 1984, 李東注 1993·1995 등), 同 繩文時代 前期初頭の 轟B式土器와의 關聯性을 指摘하는 見解(廣輶雄·1984, 李相均 1994 등), 그리고 Amurji 中流域에서 韓半島, 日本列島の 넓은 地域에 視點을 두고 關聯性을 指摘하는 見解(李東注 1993·1995) 있다.

45) 坂田邦彦(1978)의 第30圖와 第31圖限을 參照

46) 李相均(1994)의 圖 21·7을 參照

關係를 解析하기가 어려운 部分도 있기는 있지만 ④~⑤段階는 繩文時代 前期 初頭를 前後하는 時期에 該當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그 時期보다도 앞 時期인 ②·③~④段階는 越高遺蹟에서의 共伴關係와 越高尾崎遺蹟 6層出土 土器群의 存在를 통해서 보면 繩文時代 早期後葉 併行期까지 올라갈 可能性을 充分히 생각할 수 있다. 韓國 新石器時代 土器文化가 日本 繩文土器와의 關係에 있어서 어느 時期까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層位 혹은 遺構에서의 共伴關係의 增加를 기다리고 더욱 자세한 檢討를 해야 되는 問題이지만, 現況으로서 韓國 隆起文土器期에 있어서 韓國 南部地域과 日本 九州地域의 土器編年의 併行性을 어느 정도 把握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⁴⁷⁾

5. 結 論

以上 이번 小稿에서는 ‘鉢形 隆起文土器의 器形과 文樣을 分類하여 그것들의 遺蹟에서의 相關關係, 出土樣相의 檢討를 基礎로 變遷過程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다. 그 결과, 各 文樣群中에는 서로 같은 原理에 따라서 變遷하는 것도 있고, 그 文樣變遷과 器形의 組成關係 사이에 어떤 關聯性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器形과 文樣的 關係 및 地域色 등에 관한 具體的인 樣相에 관해서는 아직 不分明한 點이 많이 남아 있는 現況이다. 그 點에 관해서는 發掘調査의 進展과 함께 發掘調査時에 있어서 出土層位·地點의 差異, 遺構마다 把握되는 一括遺物을 利用한 더욱 자세한 遺蹟의 構造的인 分析을 통하여 可能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土器의 變遷過程에 있어서 ③段階前後의 土器相에 보이는 變化를 基準으로 해서 前半期和 後半期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時間的인 位置를 現況에 있어서 日本 繩文時代 土器編年과 對比하면 越高遺蹟 및 越高尾崎遺蹟에서의 共伴關係를 基準으로 ②·③~④段階를 繩文時代 早期後葉에, ④~⑤段階를 前期初頭 前後에 並行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韓國 隆起文土器의 起原은 日本 繩文時代 早期後葉보다는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時期 比定이나 各 時期의 細分 問題, 土器의 變遷過程이 生活·文化的인

47) 韓國 隆起文土器의 上限年代에 대해서, 李東注씨는 Amur 江流域, 韓半島, 그리고 日本列島의 後期 舊石器時代 이후의 樣相을 檢討하여 그 年代가 日本 繩文時代 草創期(12000年 B.P)까지 올라간다는 見解를 發表하고 있다(李東注 1993·1995). 現況에서의 韓國 隆起文土器와 日本 繩文土器의 共伴關係에서 보면, 위에서 檢討한 것과 같이 韓國 隆起文土器 1·(2) 段階가 日本 繩文時代 早期後葉(7000~6400年 B.P)보다 先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上限時期에 관해서는 日本 繩文時代 草創期 併行期까지 올라갈 可能性도 包含하여 앞으로 더욱 詳細히 檢討할 必要性이 있다고 생각한다.

背景과 어떤 식으로 關聯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問題는 土器研究의 補訂과 함께 앞으로 繼續해서 檢討해야 되는 問題이다.

이번 小稿는 筆者의 研究課題의 하나인 韓國 新石器時代의 地域性을 檢討하기 위한 一部分이 되는 것이다. 그 內容에 관해서는 아직 型式學的인 檢討를 層位學的인 檢證을 통하여 뒷받침할 수 없는 部分이 많아 論理上의 飛躍도 많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부족한 部分에 대해서는 앞으로 繼續해서 檢討·補正하고자 한다.

그 동안 많은 가르침과 激勵을 해 주신 沈春謹 教授님, 朴廣春 教授님, 李蘭嘆 教授님, 朴銀卿 教授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 日本 熊本大學의 學部 및 碩士課程을 통하여 指導해 주신 白木原和美 教授님, 甲元眞之 教授님께도 많은 學恩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筆者가 이 小稿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많은 先學의 研究成果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도움을 주신 많은 先生님과 學友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東亞大學校 博物館 資料室의 여러분들과 廣瀨雄一, 宮本一夫, 金基民, 島津義昭, 李東注, 崔鐘赫(가나다順, 敬稱略)님으로부터 많은 도움과 助言을 받았으므로 이 紙面을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參考 및 引用文獻 (가나다順)

(論文)

- 廣瀨雄一 1984 : '韓國隆起文土器論—編年を中心として—' "異貌" 11
1986 : '韓國隆起文土器の系譜と編年' "異貌" 12
宮本一夫 1986 : '朝鮮有文土器の編年と地域性' "朝鮮學報" 第121輯, 朝鮮學會
今村啓爾 1983 : '文様の割りつけと文様帶' "繩文文化の研究" 5, 雄山閣
及川民次郎 1933 : '南朝鮮牧ノ島東三洞貝塚' "考古學" 4-5
小原哲 1985 : '韓國隆起文土器の檢討' "伽倻通信" 13・14合輯
宋銀淑 1991 : "韓國 南海岸地域 新石器文化에 대한 考察", 서울大學校文學碩士學位論文
李東注 1993 : '동아시아에 있어서 한국의 초기 신석기문화에 대하여' "東아시아의 新石器文化" 문화재연구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제2집,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5 : '環東海地域の 舊石器時代末~新石器時代 初期의 文化交流에

- 대하여 “東아시아 舊石器文化研究의 諸問題”, 韓國古代學會
- 李相均 1994 : ‘繩文前期前半における竊B式土器群の様相—九州・山陰地方, 韓國南岸を中心に—“東京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室研究紀要” 12
- 林尙澤 1993 : “韓半島 隆起文土器 研究”, 서울大學校文學碩士學位論文
- 任鶴鐘 1993 : “南海岸 新石器時代初期의 土器文化에 對한 一考察”, 慶北大學校文學碩士學位論文
- 鄭澄元 1985 : ‘南海岸地方 隆起文土器에 대한 研究—型式分類와 編年을 中心으로—’ “釜山史學” 第9輯
- 1994 : ‘清道 梧津里 遺蹟出土 櫛文土器—南海岸地方 櫛文土器와 關聯하여—’ “제2회 한국학 환태평양 국제회의 고고학부문”
- 中國聰 1988 : ‘土器樣式의 動態—古墳의 南限對近을 對象として—’ “人類史研究” 第7號
- 中村愿 1982 : ‘曾畑式土器 “繩文時代の研究” 3, 雄山閣
- 澤下孝信 1989 : ‘土器樣式傳播의 一類型—中部地方西部繩文時代中期後半の地域相—’ “古文化談叢” 20(下), 九州古文化研究會
- 韓永熙 1984 : ‘신석기시대—지역적 비교’ “韓國史論” 12, 國史編纂委員會
- 1995 : ‘新石器時代 “韓國考古學의 半世紀”, 韓國考古學會
- 橫山勝三郎 1933 : ‘釜山府絶影島東三洞貝塚報告’ “史前學雜誌” 5-4

(報告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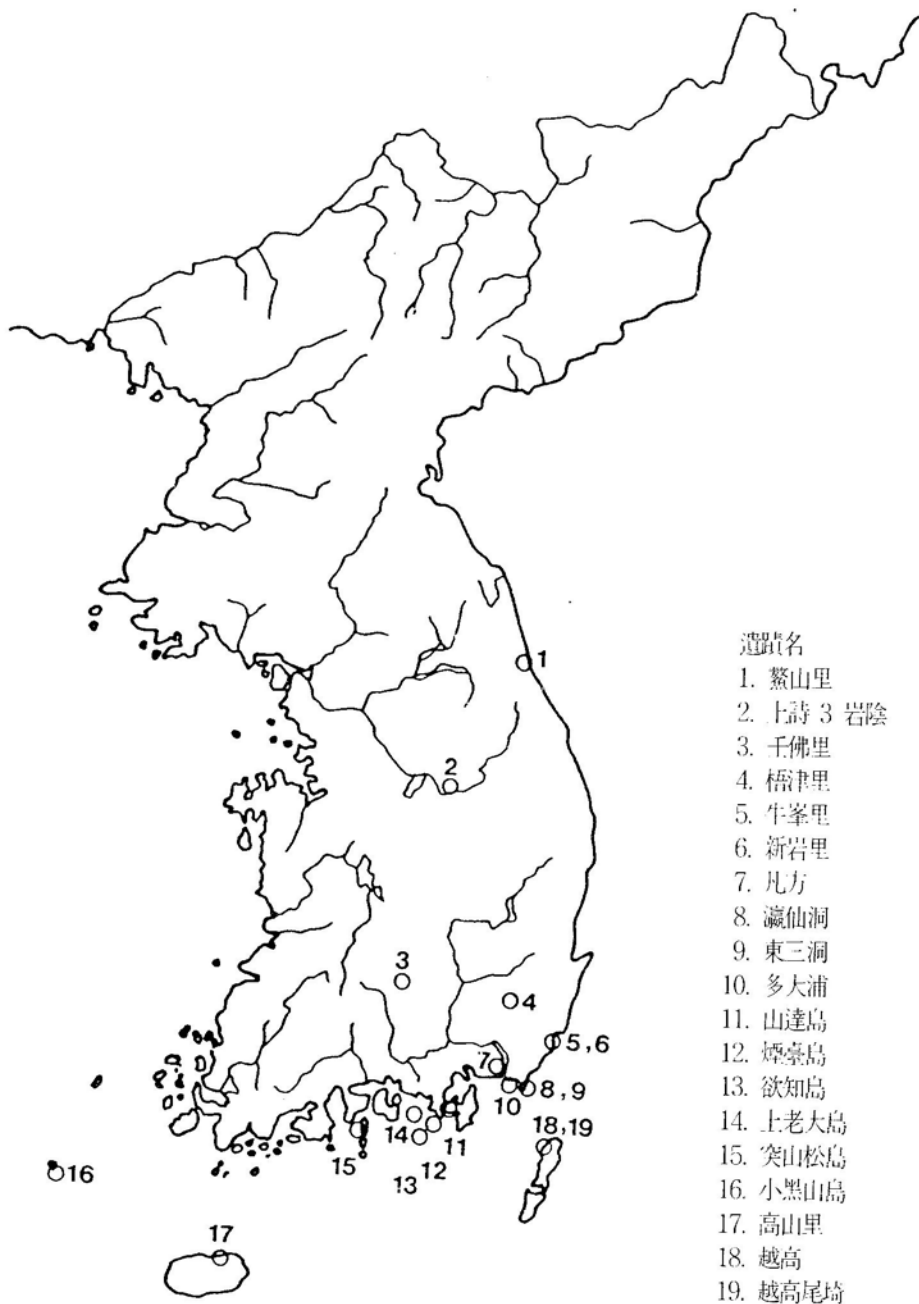
- 國立光州博物館 1989 : “突山松島Ⅰ”
- 國立光州博物館 1990 : “突山松島Ⅱ”
- 國立中央博物館 1988 : “新岩里Ⅰ”
- 國立晉州博物館·統營郡 1989 : “欲知島”
- 金東鎬 1984 : “上老大島”, 東亞大學校博物館
- 金元龍·任孝宰·權鶴珠 1985 : “鰲山里遺蹟Ⅱ”, 서울大學校博物館
- 坂田邦洋 1978 : “韓國隆起文土器の研究”
- 1979 : “對馬越高尾崎における繩文前期文化の研究”, 別府大學考古學研究室報告 3
- 任孝宰·權鶴珠 1984 : “鰲山里遺蹟”, 서울大學校博物館
- 任孝宰·李俊貞 1988 : “鰲山里遺蹟Ⅲ”, 서울大學校博物館
- 趙現鐘·申相孝·殷和秀 1994 : “附1. 麗川郡島嶼 地表調査 報告 “突山 世求地遺蹟”, 國立光州博物館·麗川郡

河仁秀·李海蓮·李賢珠 1993：“凡方貝塚I”，釜山直轄市立博物館
韓永熙·任鶴鐘 1993：“煙臺島I”，國立晉州博物館·統營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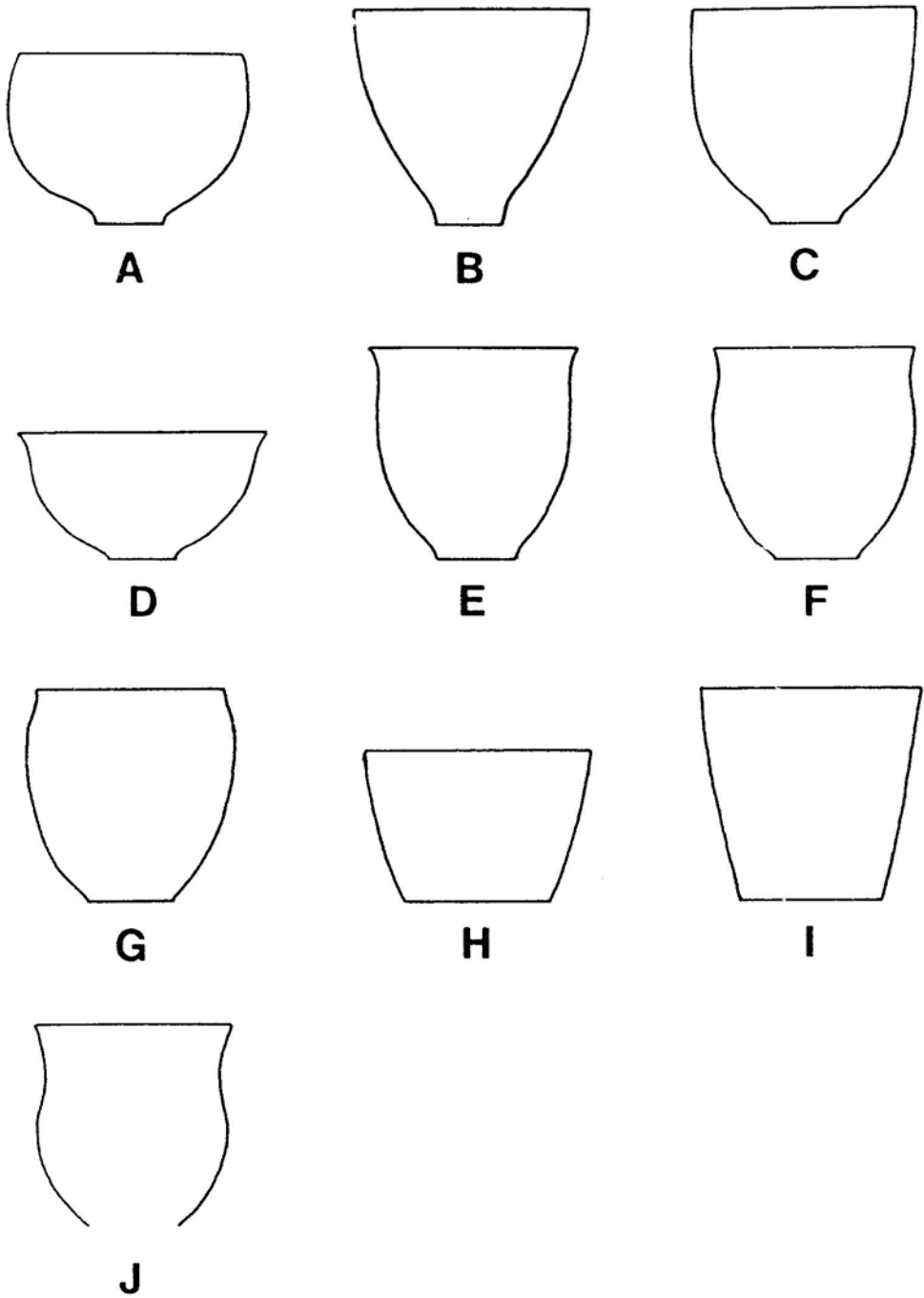
<圖面目次 및 出典>

- 圖面 1. 隆起文土器 出土 主要遺蹟 分布圖
- 圖面 2. '鉢形隆起文土器 器形 模式圖
- 圖面 3. '鉢形隆起文土器 實測圖 (器形)
(1~3·5·6·11·21·22:新岩里, 4·7:鰲山里, 8·18~20:突山松島, 9·14:越高, 10·12·16:凡方, 13·5·7:煙臺島)
- 圖面 4. a文樣群 文樣變異 模式圖
- 圖面 5. b文樣群 文樣變異 模式圖
- 圖面 6. c文樣群 文樣變異 模式圖
- 圖面 7. d文樣群 文樣變異 模式圖
- 圖面 8. a文樣群 '鉢形隆起文土器 實測圖
(1·5·7:新岩里, 2~4·8·10·11·13:越高, 6:凡方, 9·14·18·20~22:欲知島, 12·16·17·19:煙臺島, 15:上老大島)
- 圖面 9. b文樣群 '鉢形隆起文土器 實測圖
(1~3·6·7·24~26·30:新岩里, 4·5:上老大島, 8·9·22:突山松島, 10·12~15·20:越高, 11:欲知島, 16·18·27~29·31:煙臺島, 17:鰲山里, 19·21·23:凡方)
- 圖面10. c文樣群 '鉢形隆起文土器 實測圖
(1·5·8·9:新岩里, 2·4·6:煙臺島, 3:突山松島, 7:凡方)
- 圖面11. d文樣群 '鉢形隆起文土器 實測圖
(1·2·7·13·14:突山松島, 5·8·9·15:煙臺島, 6:欲知島, 3·4·越高, 10:山達島, 11·18~22:凡方, 12:新岩里, 16·17:越高尾崎)
- 圖面12. '鉢形隆起文土器 文樣變異 變遷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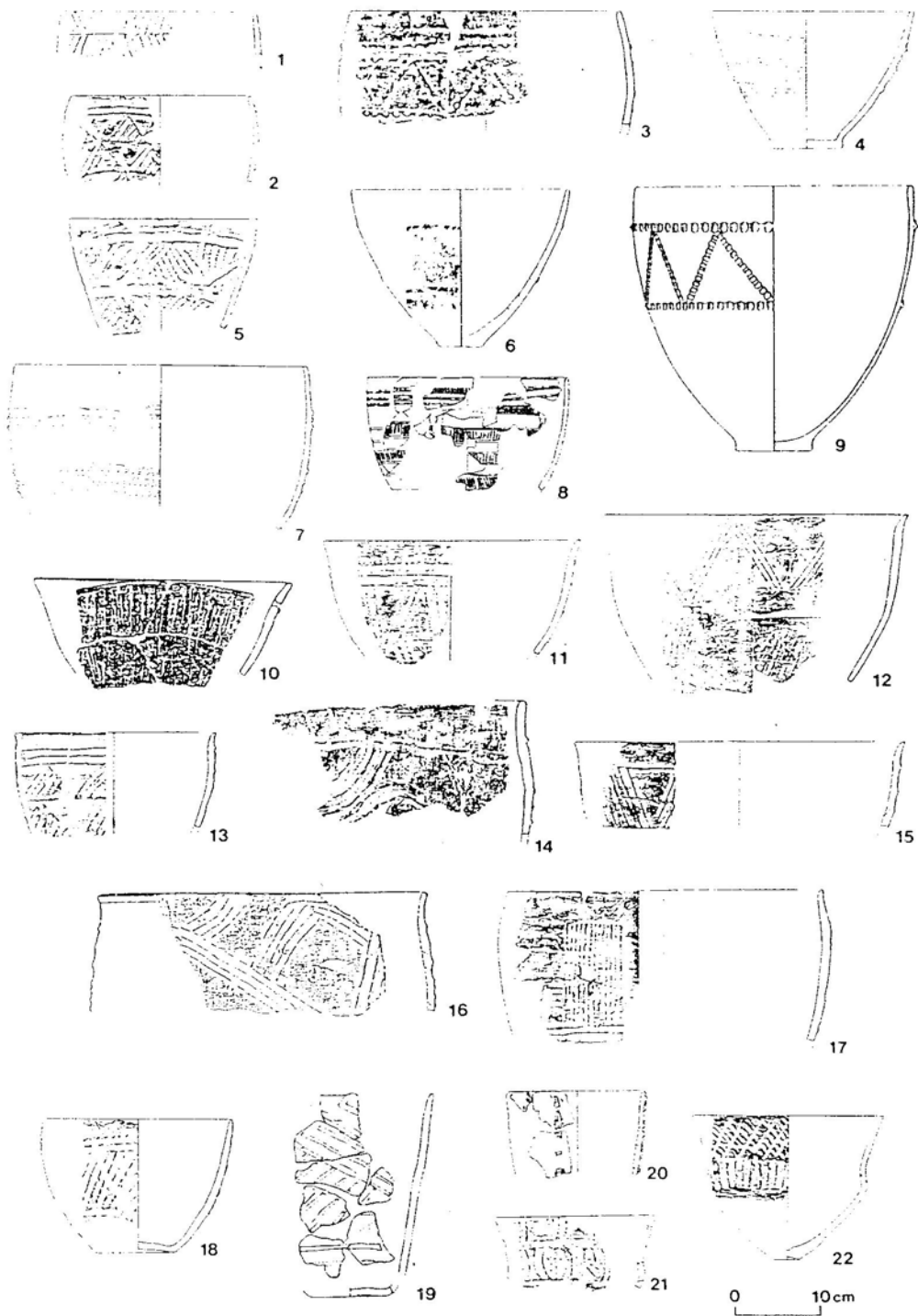
各 圖面中の 實測圖는 大部分 各 報告書에서 轉載했는데 圖面 9-17, 10-9만은 小原(1985)에서 轉載했다.



圖面 1. 隆起文土器 出土 主要遺蹟 分布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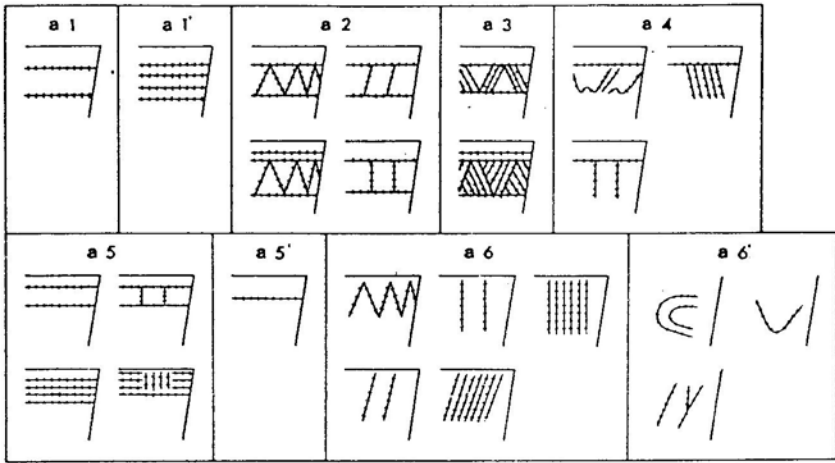


圖面 2. '鉢形隆起文土器' 器形 模式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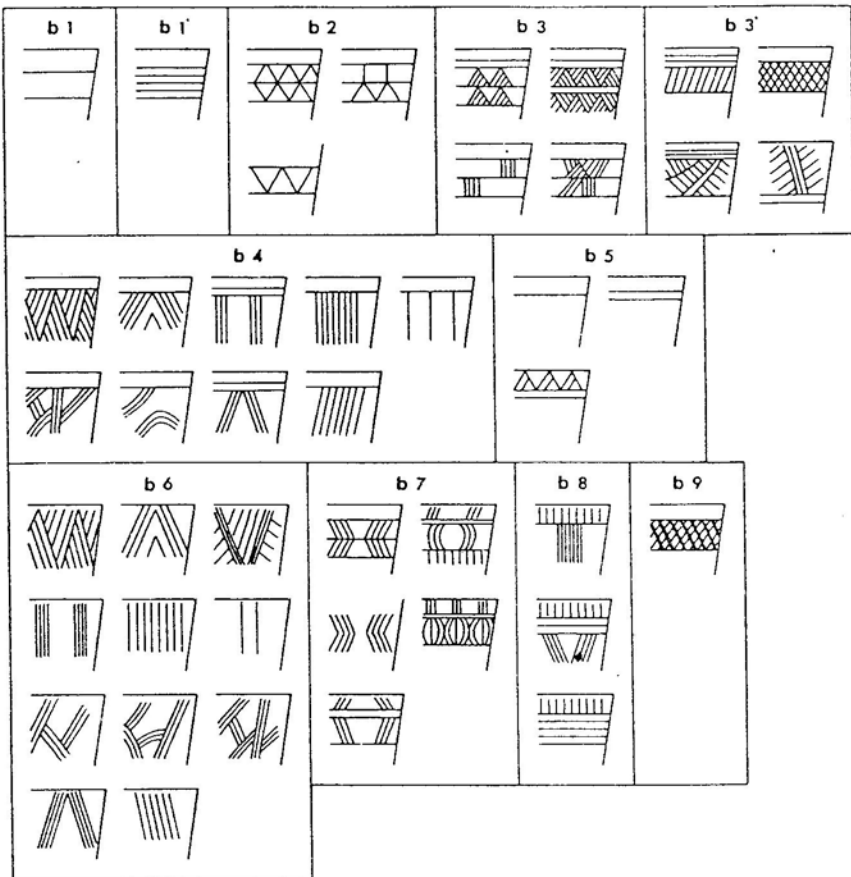


圖面 3. 鉢形隆起文土器 實測圖 (器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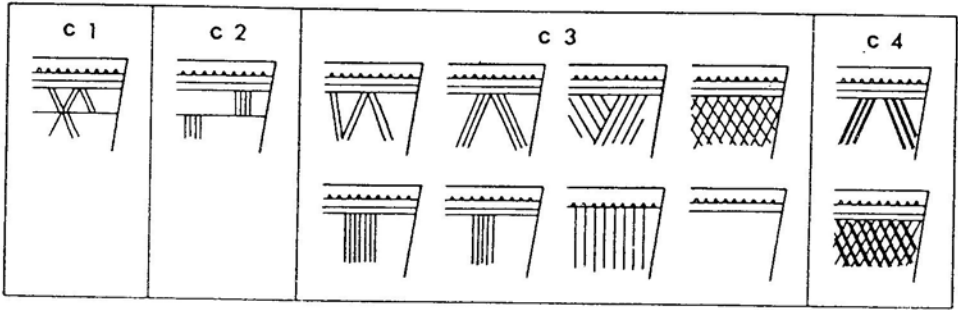
器形 A : 1~3, B : 4~6, C : 10·11, E : 12·13·15, F : 14·16, G : 17, H : 18, I : 19·20, J : 2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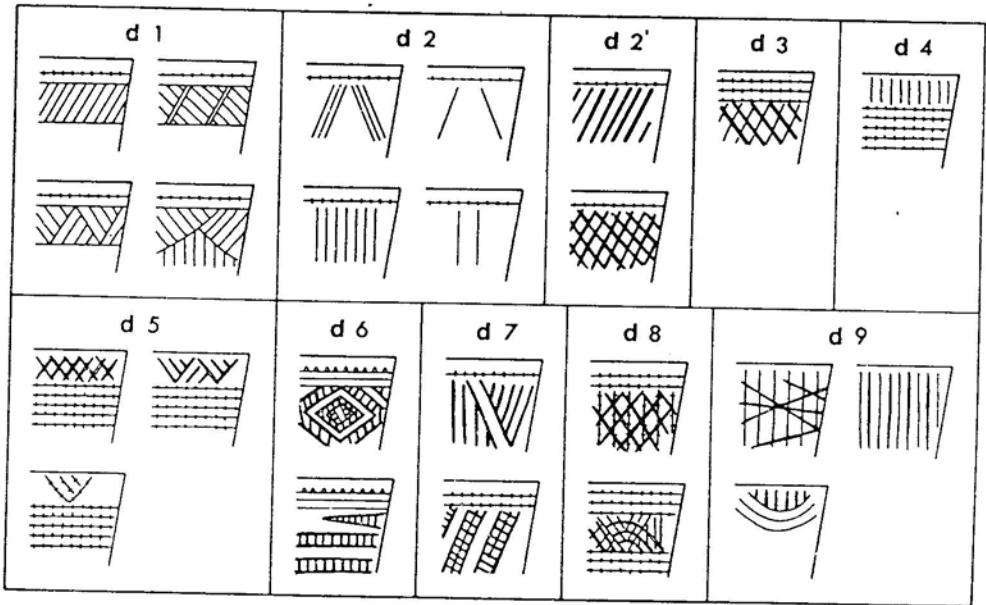
圖面 4. a文様群 文様變異 模式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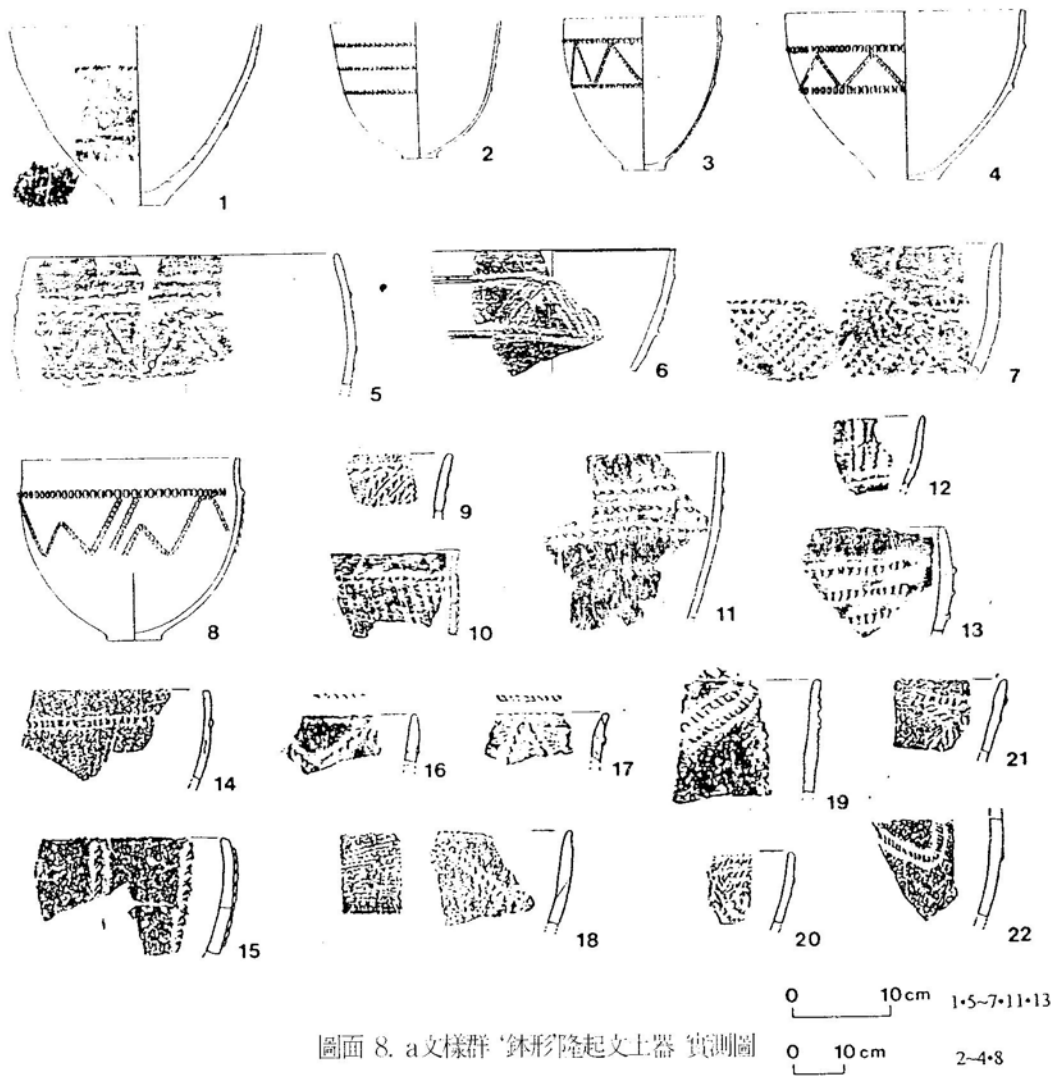
圖面 5. b文様群 文様變異 模式圖



圖面 6. c文樣群 文樣變異 模式圖



圖面 7. d文樣群 文樣變異 模式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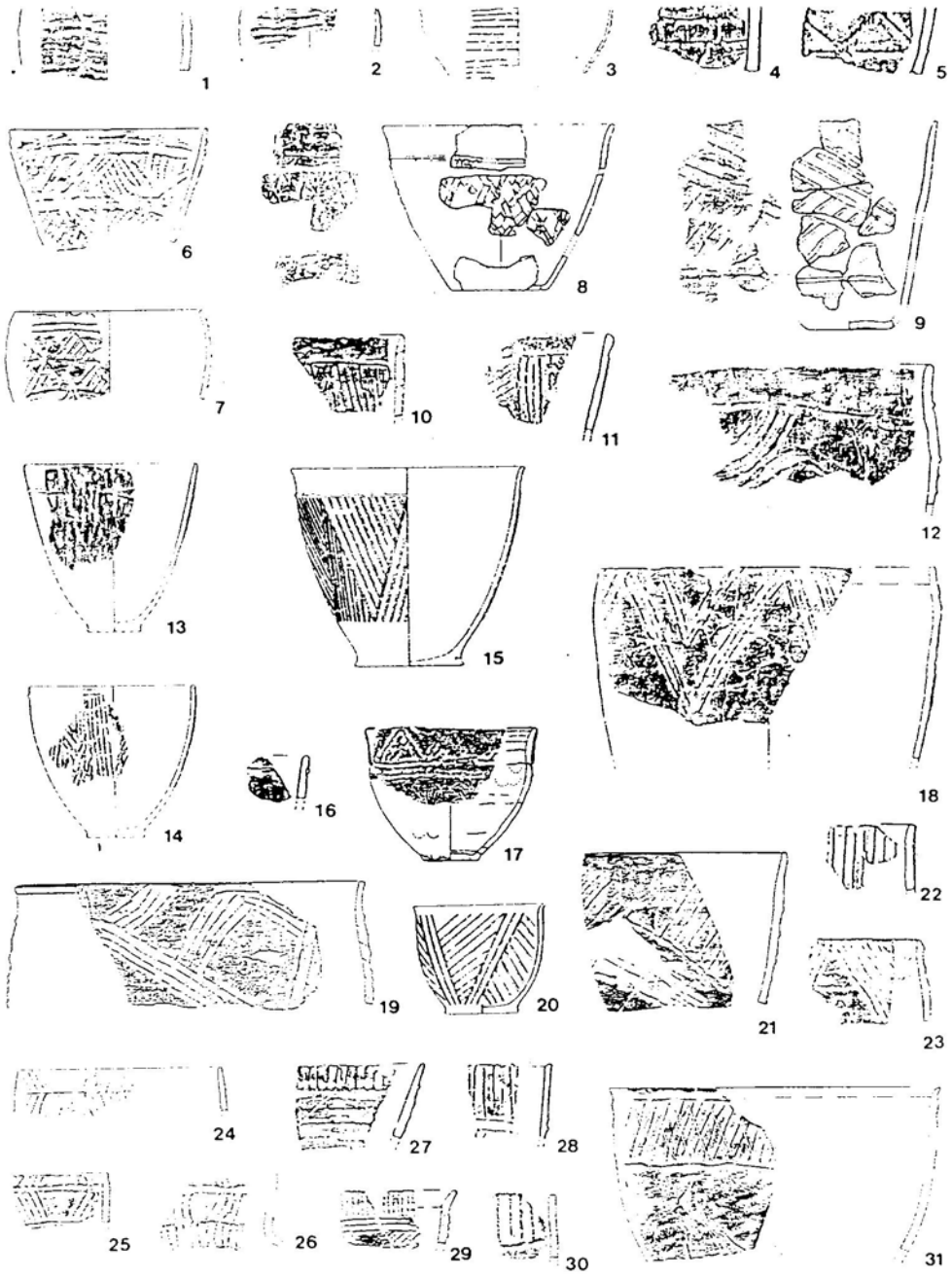


圖面 8. a文様群 鉢形隆起文土器 實測圖

文様 a1類: 1, a1'類: 2, a2類: 3~5, a3類: 6・7, a4類: 8~10, a5類: 11~13,

a5'類: 14, a6類: 15~19, a6'類: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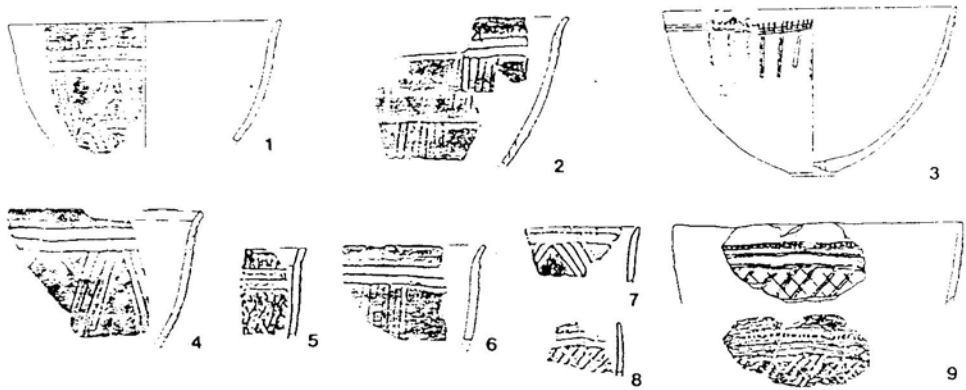
其他は 縮尺不同



0 10cm 3 0 10cm 1·2·6·9·12·15·17·21·23·26·29·31

圖面 9. b文様群 '鉢形隆起文土器' 實測圖

文様 b1 類: 1, b1' 類: 2·3, b2 類: 4·5, b3 類: 6·7, b3 類: 8·9, b4 類: 10~14,
 b5 類: 16·17, b6 類: 18~23, b7 類: 24~26, b8 類: 27~30, b9 類: 31 其他は 縮尺不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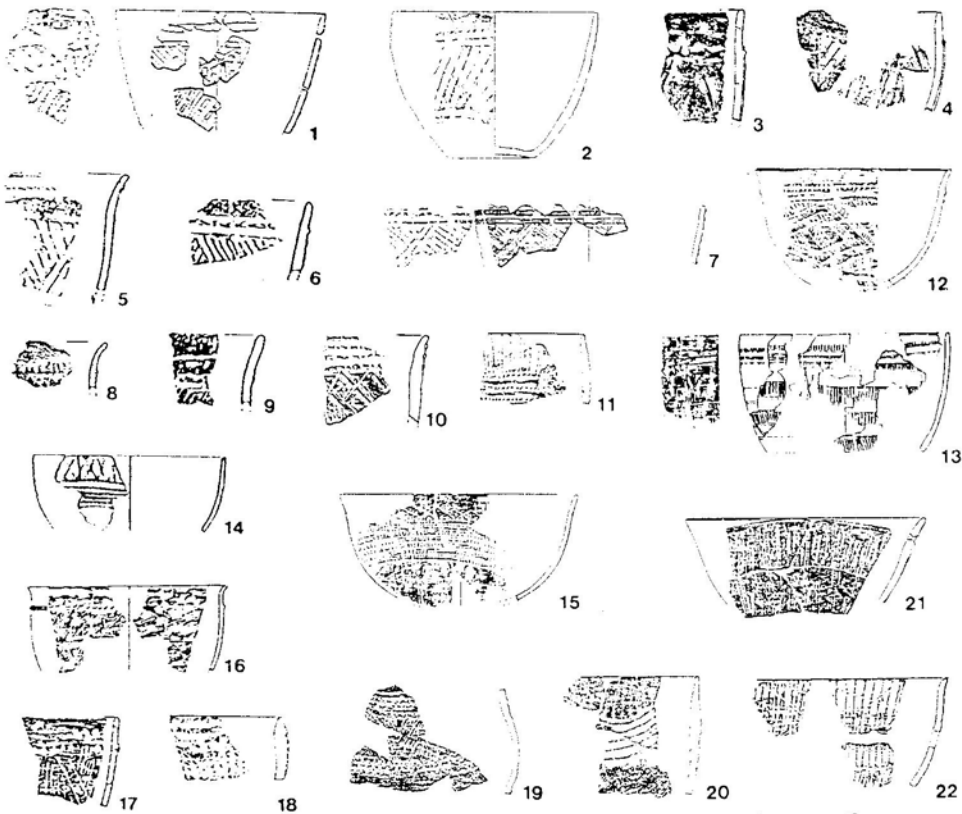


圖面 10. c 文樣群 '鉢形隆起文土器' 實測圖

0 10 cm 1-4-6-9

文樣 c1 類: 1, c2 類: 2, c3 類: 3-7, c4 類: 8-9

其他: 縮尺不同



圖面 11. d 文樣群 '鉢形隆起文土器'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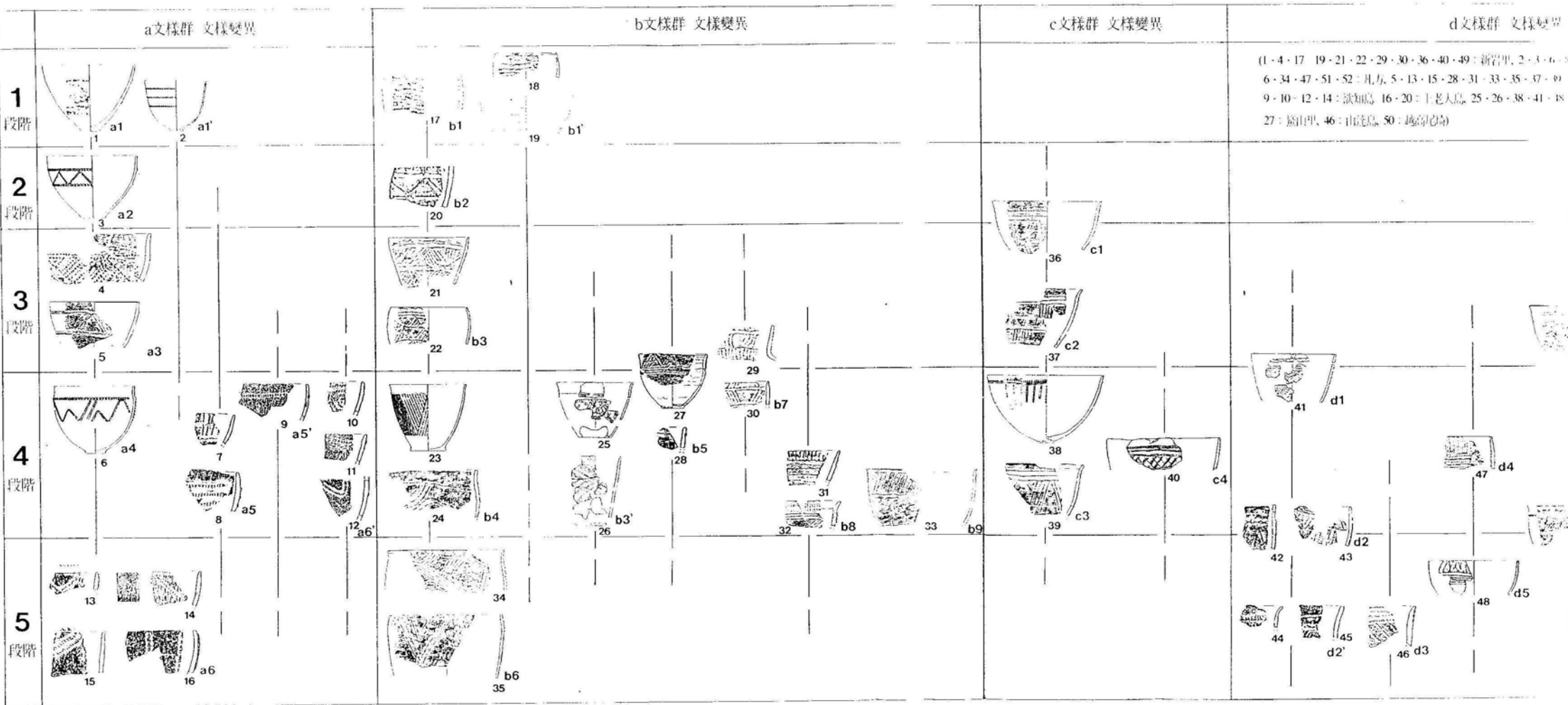
0 10 cm

2-10-17-19-22

文樣 d1 類: 1-2-5-7, d2 類: 3-4, d2' 類: 8-9, d3 類: 10, d4 類: 11, d5 類: 14-15

d6 類: 12-13, d7 類: 16-17, d8 類: 18-19, d9 類: 20-22

其他: 縮尺不同



圖面 12. 鉢形隆起文土器 文様變異 變遷圖

b 文様群 文様變異	c 文様群 文様變異	d 文様群 文様變異
<p>1: 4・17・19・21・22・29・30・36・40・49；新宮集, 2・3・6・8・23・24・42・43；越前 6・34・47・51・52；凡五, 5・13・15・28・31・33・35・37・39・44・45；伊勢集 9・10・12・14；源朝集, 16・20；上老集, 25・26・38・41・48；笈田集 27；新田集, 46；田代集, 50；越前心集</p>		

	A	B	C	A~C	D	E	F	G	D~F	H	I	J
a1		2										
a1'	1		1		1			1	1			
a2	2	1	1									
a3		1										
a4	1	1	(2)									
a5	3	8(1)		4					1			
a5'	(7)	4(1)	(1)	(2)					2			
a6	1	1					1	1				
a6'	1	4										
b1			1									
b1'	1(1)	2(1)			1							
b2												
b3	1	1			1(1)	1			1			
b3'			(1)							1	1	
b4		2	1		1	2	2		3(1)			
b5						(1)	1		1			
b6					1	3(1)	1	3	2	(1)	1	
b7	2											2
b8		(1)			(1)				(1)			
b9						1			3			
c1					1							
c2					2				(1)			
c3					4	4			9			
c4			(1)									
d1		3				1			1	1		
d2			1	1		1						
d2'						1						
d3						(1)						
d4	(1)											1
d5					2							
d6-7			2		1	3			1			
d8												
d9					4	1		3	1			

凡例

- : 相關성이 높은 것
 : 相關성이 낮은 것

備考

A, B, C …는 器形을 a, b, c…는 文樣群을 나타낸다.
 ()內的 數字는 器形 혹은 文樣構成이 不確實한 것.
 b2, d8은 文樣變異로서는 存在하지만 器形을 推定되는 資料가 없는 것.

表 1. 器形과 文樣變異의 相關關係

遺蹟 器形	鰲山里	新岩里	欲知島	上老大島	越高	越高尾崎	凡方	煙臺島	突山松島
A	(1)	8		1	4	(1)	10(1)		
B	3(1)	2(1)	19		2		1(1)	1(1)	1
C		1(1)	3		1(2)				2
D	(1)	5			1		3	10(2)	1(1)
E		1	1		1(1)	1	6	9	
F		1			1		3		
D~F		4	4	9			24	26	2
G							6	2	
H									2
I									2
J		3		1			7	2	

凡例

- : 相關性이 높은 것
 : 相關性이 낮은 것

備考

()內的 數字는 器形이 不確實한 것

表 2. 遺蹟別 器形 出土狀況

	盤山里	新岩里	凡方	煙臺島	上老大島	欲知島	突山松島	越高	越高尾崎
a1	1	3							
a1'	1	1	7(2)	3			1	1	
a2		2						2	
a3		2	1(1)						
a4			1			2(2)		2	
a5	(1)	1	8(1)	5	1	7	3	8	1
a5'			1(10)	4		6(1)	1	(3)	1(4)
a6			3	6	2	3			
a6'			3	1		6	2(1)		
b1		1							
b1'	2(2)	3	1	3	1		3		
b2		2(2)			2				
b3		4		1(1)	1		(1)		
b3'							3(5)		
b4		5(2)	2(1)	7(1)	3(1)	1	4	5(2)	
b5	(1)	1	2(1)	5		1	2		
b6			15(4)	6	1		4(1)	1	1
b7		8(1)			1				
b8		1	(1)	4(3)	2				
b9				4					
c1		1							
c2			(1)	2					
c3		1	5	8	1		3		
c4		2							
c		4	15	12	4	1	2		
d1				1		2	5(4)		
d2						1		2	4
d2'			1(1)	3					
d3			1						
d4			1	1			1		
d5				4(2)			3(2)		1
d6 · 7		3	2(5)	3(2)	1		2		4
d8			3						
d9			14(1)	5			(1)		

備考

()内の數字는 文様構成이 不確實한 것.

a1 · 2 · 3..., b1 · 2 · 3...는 文様變異를 나타낸다.

c는 c文様群에 屬하지만 어떤 文様變異인지 모르는 資料數

表 3. 遺蹟別 文様變異 出土樣相